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 爽 周

# 現代國語 對比助詞의 意味 研究

-‘~만큼, ~처럼, ~같이, ~대로’를 대상으로-

Study on Compared marker in Current Korean language

-‘~Mankum, ~Cheorum, ~Gachi, ~Daero’ -

2000年 2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羅 恩 美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 爽 周

# 現代國語 對比助詞의 意味 研究

-‘~만큼, ~처럼, ~같이, ~대로’를 대상으로-

Study on Compared marker in Current Korean language

-‘~Mankum, ~Cheorum, ~Gachi, ~Daero’ -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2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羅 恩 美

羅恩美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0年 2月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 목 차

<b>제 1장 서론</b> .....	1
1. 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	3
1. 3 연구방법 .....	13
<b>제 2장 이론적 배경</b> .....	16
2. 1 비교와 비유의 개념 .....	16
2. 2 의미 관계의 양상과 유의 관계 .....	22
2.2.1 의미 영역 .....	26
2.2.2 유의 관계의 성립 조건 .....	29
2.2.3 유의 관계의 검증 방법 .....	33
<b>제 3장 대등적 대비 조사의 의미 특성</b> .....	36
3. 1 ‘~만큼’의 유형과 의미 특성 .....	36
3. 2 ‘~대로’의 유형과 의미 특성 .....	49
3. 3 ‘~처럼’의 유형과 의미 특성 .....	57
3. 4 ‘~같이’의 유형과 의미 특성 .....	66
<b>제 4장 대등적 대비 조사의 의미 관계</b> .....	73
4. 1 ‘~처럼’과 ‘~만큼’의 의미 관계 .....	74
4. 2 ‘~처럼’과 ‘~같이’의 의미 관계 .....	79
4. 3 ‘~처럼’과 ‘~대로’의 의미 관계 .....	80
<b>제 5장 결론</b> .....	83
참고문헌.....	86
ABSTRACT.....	94

## 표 목 차

<표 1> 비교 조사의 의미 .....	9
<표 2> ‘~만큼’의 사전 뜻풀이 .....	37
<표 3> ‘~만큼’의 유형 .....	46
<표 4> ‘~대로’의 사전 뜻풀이 .....	51
<표 5> ‘~대로’의 유형 .....	55
<표 6> ‘~처럼’의 사전 뜻풀이 .....	58
<표 7> ‘~처럼’의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의 관계 .....	62
<표 8> ‘~처럼’의 유형 .....	64
<표 9> ‘~같이’의 사전 뜻풀이 .....	68
<표 10> ‘~같이’의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의 관계 .....	70
<표 11> ‘~같이’의 유형 .....	71
<표 12> ‘~처럼’과 다른 조사와의 교체 가능 유형 .....	74

## 그림 목 차

<그림 1> ‘~처럼, ~같이, ~만큼’의 중첩 양상.....	11
<그림 2> ‘~처럼, ~같이, ~만큼’의 중첩 양상.....	11
<그림 3> ‘~만큼, ~대로, ~처럼, ~같이’의 비중첩 양상.....	12
<그림 4> 견증이 인식 작용과 표현 방법.....	17
<그림 5> 비교 표현의 과정.....	19
<그림 6> 비유 표현의 과정.....	20
<그림 7> 기호 사이의 관계 ( $S_1 : S_2$ ) : 유의 관계.....	23
<그림 8> 개념 사이의 관계 ( $C_1 : C_2$ ) : 반대 관계.....	23
<그림 9>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 ( $R_1 : R_2$ ) : 상·하의 관계, 부분·전체 관계, 공유관계.....	23
<그림 10> 의미의 중첩 관계.....	26
<그림 11> 의미의 연결 관계.....	26
<그림 12> 언어의 언어역 양상.....	27
<그림 13> 대등적 대비 조사의 영역.....	85

# 제 1장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대상

이 연구는 현대 국어 조사 중에서 대등하다고 인식하는 두 대상을 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류의 기능 의미 및 이들의 용법상의 상관 관계를 살펴, 의미의 유사성과 상이점 등 서로의 의미 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찍이 김영희(1974)는 조사의 분포와 기능의 상관 관계를 지적하면서 이들 유형의 조사들이 동일한 위치에 분포하며 그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한정 조사(특수 조사)의 목록으로 분류된 조사에 대해서는 의미 파악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목록 속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들은 문법적 기능 이외의 의미가 포착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적인 작업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등은 동일한 분포와 그 기능의 유사함으로 인해, 이들이 의미적으로 어떤 상관 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들이 기준 어구(Standard Phrase)에 연결되어, 비교되는 어구(Compared Phrase)와의 대등의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 표지로, 통사상 동일한 분포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 문맥에서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sup>2)</sup>을 고려할 때, 의미적으로 상관 관

---

1) 특수 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의미 연구는 고영근(1976), 채완(1977), 성광수(1979), 홍사만(1983)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2) 일부 문맥에서 교체가 가능하다.

(1) 명주는 무명 {처럼/만큼/같이/\*대로} 질기다.

(2) 그의 몸이 활 {처럼/만큼/같이/\*대로} 휘어졌다.

(3) 어머니는 자신의 말 {처럼/\*만큼/같이/대로} 겨우 한 짐을 던 채 그 해 가을

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즉, 이들은 [대비]의 영역 내에서 [대등]의 자질에 의해 [차등]의 의미 영역과 경계지어진 하나의 의미 영역을 형성하고 있어 이 영역에서의 의미 영역의 점유 양상에 서로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차등의 대비 기능이 ‘~보다’<sup>3)</sup> 하나에 의해 수행되는 것과 달리 대등한 대상을 대비하는 기능은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등이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지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의미 차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sup>4)</sup>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만큼, ~처럼, ~같이, ~대로’로 한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사들의 의미를 살펴 보는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등한 것을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 조사의 의미와 이들의 관련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대비 조사의 의미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둘째, 언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지침으로 제공될 수 있다. 언어란 그

---

에 쓰러지셨다.

(4) 발을 어깨 넓이(\*처럼/만큼/\*같이/\*대로) 벌려라.

(5) 저 친구 오늘 얼마(\*처럼/만큼/\*같이/\*대로) 약을 올려줄까?

(6) 꿈은꿈(\*처럼/\*만큼/\*같이/대로) 현실은 현실(\*처럼/\*만큼/\*같이/대로)두는 것이 좋아.

(7) 아이고 또 지랄(\*처럼/\*만큼/같이/\*대로) 딸이네.

3) 차등 비교 표지로 ‘~만’을 설정하기도 하나 현대 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듯하다. 또한 동등의 ‘~만’은 현대 국어의 용례로 보아 ‘~만큼’이 ‘~만’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는 없으나 ‘~만’은 대동사 ‘하(다)’에만 특히 ‘하(다)’가 상태 동사의 대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만큼’의 대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은 비교 조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만큼’에 포함시킴이 가하다고 본다. 구태여 구분한다면 (상태)대동사가 서술어일 경우에 사용되는 ‘~만’과 기타 대부분 동사문에 다 사용되는 ‘~만큼’으로 구분할 수 있다(성광수 1979 : 113-114).

4) 비교 조사에 대한 그동안 연구들은 순수한 의미론적 접근이라기보다 통사론적 연구에서 한 부분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 조사류의 의미 차이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형편이다.

변화를 통시적 흐름 속에서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공시적 시간 내에서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모국어 화자들은 이들의 의미 차이를 직관적으로 변별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조사의 의미 차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고급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넷째, 기계 번역과 관련한 작업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직관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용법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환경을 명료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 1.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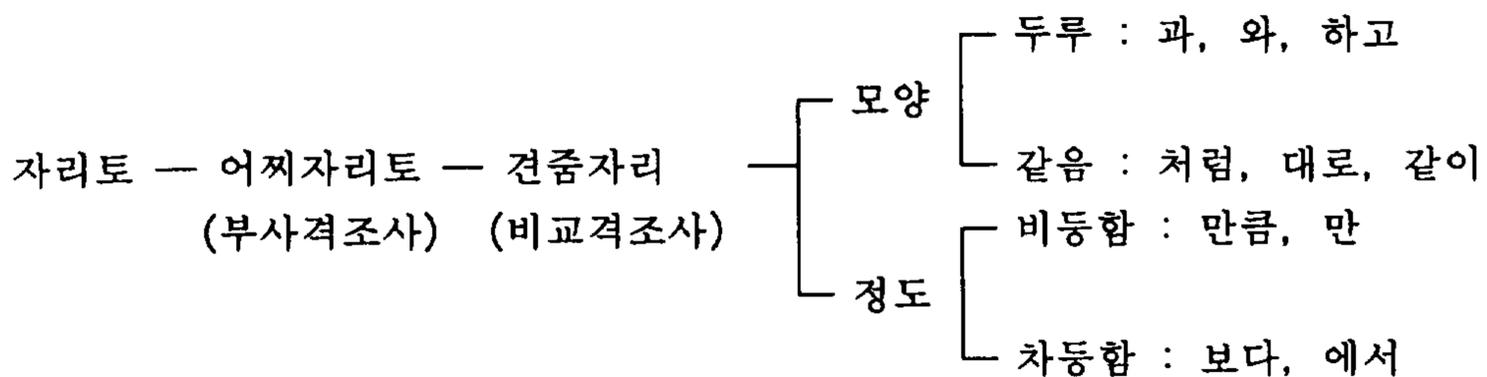
### 1.2.1 선행 연구 검토

국어의 조사에 대한 연구는 초기의 범주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국어는 교착어로서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조사는 인구어의 격어미가 체언과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융합적인 관계를 지닌 것과는 달리, 서로 분리 가능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이 조사들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국어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홍윤표 1990 : 221). 그러나 또한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조사의 통사론적 연구는 풍부하게 이루어진 반면, 내용어와는 달리 그 고유의 의미 포착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의미 연구는 소홀히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특수 조사 목록에 분류된 조사들에 대해서는 의미론적 연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이러한 목록에 분류되지 못한 조사들에 대한 의미 연구는 미약한 형편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등에 관한 연구도 순수한 의미론적 연구보다는 통사론적 연구에서 한 부분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주시경(1910)은 '것'의 갈래를 '만'과 '금이나 자리'로 분류하고 있으며, '금이나 자리'는 '만'의 자리를 금하는 것으로 임기 아래 더하여 억기, 몸, 곧, 금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 직접적으로 '~만큼, ~처럼, ~같이, ~대로' 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분류는 소위 부사격 조사가 분류 취급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사의 세분은 대체로 조사의 형태를 바탕으로 한 선행 체언에 대한 의미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형태의 조사가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다(성광수 1978 : 5). 주시경(1910)의 이러한 분류는 이미 문법 형태소의 의미에 대해 관심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최현배(1937)에서는 토씨의 갈래를 자리토씨, 도움토씨, 이음토씨, 느낌토씨로 나누고 자리토씨 아래 어찌자리토(부사격 조사)를 하위 분류한 후 그 쓰임 영역에 따라 곳자리(처소격), 연장자리(도구격), 자격자리(자격격), 견중자리(비교격), 함께자리(공동격), 바꾸힘자리(변성격)로 세분하고 있다. 비교격조사인 견중자리는 견중의 유형에 따라 다시 모양과 정도의 견중으로 분류한 후, '~과, ~와, ~하고'는 모양의 두루 견중으로, '~처럼, ~대로, ~같이'는 모양의 같음 견중으로, '~만큼, ~만'은 정도의 비등함을 견주는 토로, '~보다'는 정도의 차등 견중을 위한 토로 분류하고 있다.



김민수(1971)는 격의 범주를 그 상대성 곧 위치성과 무표성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를 보이는 자리토와 의미를 더하는 두루토로 양분하고 두루토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만큼(程度), ~처럼·~같이(同類), ~대로(本然)’, ‘~보다(比較)’를 동일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김영희(1974)는 조사 형태들을 격표지(Case Marker), 접속 표지(Connective Marker), 한정 표지(Delimitation Marker)로 분류하고 이들 표지들의 기능과 분포의 상관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접속 표지 아래 비교의 표지를 차등과 대등으로 분류하고 대등의 접속 기능을 드러내는 표지로 ‘~만, ~만큼, ~처럼, ~같이, ~마냥, ~대로’와 차등 기능 표지로 ‘~만, ~보다’를 들고 있다.

또한 생성 문법론에 기반하여 기술하고 있는 성광수(1978)는 조사를 내면의 기저격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와 내면의 표면화에 관계되는 표현 구조상의 구문 조사, 의미 한정인 한정 조사로 구분한 후 비교 조사는 두 번째 유형인 표면 구조상의 구문 조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차등 비교 조사로 ‘~보다’와 대등 비교 조사로 ‘~만큼, ~처럼’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대등 비교 조사가 [+접속] [+종속] [+대등]을 공통 자질로, ‘~만큼’은 [+정도]를 ‘~처럼’은 [+상태]를 변별 자질로 갖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선행 연구에 비해 비교 조사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천착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로’와 ‘~같이’를 분석 가능하고 어원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들 조사가 분석이 가능하고 그 어원을 추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이들이 분명히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용법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필자도 이들을 조사로 인정한다.

김승곤(1989)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통시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견중 자리토(비교 조사)아래 ‘~만큼(정도), ~처럼(유사), ~같이(동일), ~보다,

~마따나'를 분류하고 '~대로(동일)'는 동일 자리토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처럼'은 가리킴이나 지정말의 견준말에 유사함을 드러내며, 풀이씨 뒤에 쓰이어 유사함을 나타내면서 성분으로는 견준말이 되지만, 이와 달리 '~같이'는 가리킴 말과 동일함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같이'의 동일함과 '~대로'의 '동일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 (1) 그는 중국 사람처럼 중국말을 잘한다.
- (2) 그는 중국 사람같이 중국말을 잘한다.

(1)에서 '~처럼'은 '그'는 중국 사람이 아닌데 중국 사람인 것처럼 중국말을 잘 한다는 뜻이고, (2)은 '그가 하는 중국말'과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말'이 동일할 만큼 유창하다는 뜻으로, 따라서 (1)의 '~처럼'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견준이요, (2)의 '~같이'는 '한국말'과 '중국말'의 견준이기 때문에 '~처럼'이 이질적 견준이라면, '~같이'는 동일적인 견준이라 했다. 그러나 (1)과 (2)를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적 차이를 얼마나 해명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한편 김봉모(1990)는 이들 견준말의 통어적 위치는 풀이말에 대한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씨와 더불어 어찌이은말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견준의 정도성에 따라 '~와, ~보다, ~처럼, ~만큼'의 네 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이상태(1994)는 '~만큼' 구문을 통사론적으로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 그 어휘적 의미로서 '수량'과 '정도' 그리고 '명제 내용에 관한 다짐의 정도가 깊음'까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이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비 조사의 연구라기보다, 조사 용법 이외에 의존 명사

용법까지 포함한 ‘~만큼’ 구문 전체에 대한 연구로 (3)의 경우만 이 연구의 대상인 조사의 용법이다.

- (3) 한보가 두보만큼 팔이 길다(동등의 비교).
- (4) 한보가 두보보다 팔이 한 뼘 될 만큼 더 길다(수, 량).
- (5) 너는 음식을 우리가 모두 먹을 만큼(많이) 담아 오너라(수, 량).
- (6) 김 사장과 이미 계약을 해 버린 만큼(그가) 다른 곳에 팔려 할 수는 없을거야(명제 내용에 관한 다짐의 정도 깊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유형의 통사적 범주와 목록에는 차이가 있다. 즉, 최현배(1937)는 관계 개념인 자리토(격조사)아래 분류하고 있으며, 김민수(1971)는 의미를 더하는 두루토 아래 분류하고 있고, 김봉모(1990)는 어찌이은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 범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로 문장 내에서 두 대상을 견주는 구문을 만든다는 점과, 이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최현배(1937) : 과, 와, 하고, 처럼, 대로, 같이, 만큼, 만, 보다, 에서
- ②김민수(1971) :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보다
- ③김영희(1974) : 만, 만큼, 처럼, 같이, 마냥, 대로, 보다
- ④성광수(1978) : 만큼, 처럼, 보다
- ⑤김승곤(1989) :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마따나, 보다
- ⑥김봉모(1990) : 와, 처럼, 만큼, 보다

이 연구에서는 대등한 대상을 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 형태로 그 연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므로 차등의 견줄을 수행하는 ‘~보다’는 제외

된다. 또한 최현배(1937)와 김영희(1974)에서 대등한 대상을 견주는 조사로 분류하고 있는 ‘~만’은 ‘~처럼, ~같이, ~대로’ 등과 달리 특정 서술어와만 공기하여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쓰이며, 현대 국어에서 빈번하게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큼’에 포함시켜도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 역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냥’과 ‘~따나’ 역시 현대 국어에서 사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최현배(1937)와 김봉모(1990)에서 분류하고 있는 ‘~와/과’는 그 자체에 비교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와/과’와 공기하는 서술어의 의미에서 생기는 대비이므로 ‘~와/과’ 자체가 견준말이라고 볼 수 없다.

- (7) a. 영화는 철수와 키가 비슷하다.  
 b. \* 영화는 철수만큼 키가 비슷하다.  
 c. \* 영화는 철수처럼 키가 비슷하다.
- (8) a. 나도 할머니와 살고 싶어.  
 b. 나도 할머니만큼 살고 싶어.  
 c.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7a)는 (7b)나 (7c)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견준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대상을 두고 그 기준 대상에 대비했을 때 어떠한 진술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비의 기준이 되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먼저 인지되어 있어야 한다.

(8b)는 비교 대상인 ‘할머니’가 산만큼 ‘오래’ 살고 싶다는 것으로 화자는 ‘할머니’가 얼마나 살았는지 그 정보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이며, (8c) 역시 ‘할머니가 살아 온 삶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할머

니'를 견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대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은 (8b)에서 '할머니'를 견준의 대상이 되게 함과 동시에 이 견준의 내용이 '삶의 양적인' 부분이 되게 하고, '∼처럼'은 (8c)의 대비 내용을 '삶의 질적인' 부분이 되게 한다. 그러나 (8a)의 경우는 단순히 '나와 할머니'를 동시에 인지하는 것이며, 두 대상에 대한 대비의 의미는 서술어인 '비슷하다'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7a)에서와 같이 8(a)는 대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와/과' 자체가 대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와/과' 구문이 대비의 의미를 드러낼 때 공기하는 서술어는 '비슷하다, 유사하다, 닮다' 등으로, 이들 서술어는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두 대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비의 의미가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대등한 대상을 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표 1> 비교 조사의 의미

비교조사 선행연구	'∼만큼'	'∼처럼'	'∼같이'	'∼대로'
최현배(1937)	정도(비등)	모양(같음)	모양(같음)	모양(같음)
김민수(1971)	程度	同類	同類	本然
김영희(1974)	대등	대등	대등	대등
성광수(1978)	정도	상태	-	-
김승곤(1989)	정도	유사	∼같이, ∼따라서, 꼭같이	동일

5) 위의 연구들이 구체적인 의미 연구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영희를 제외한 다른 연구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의미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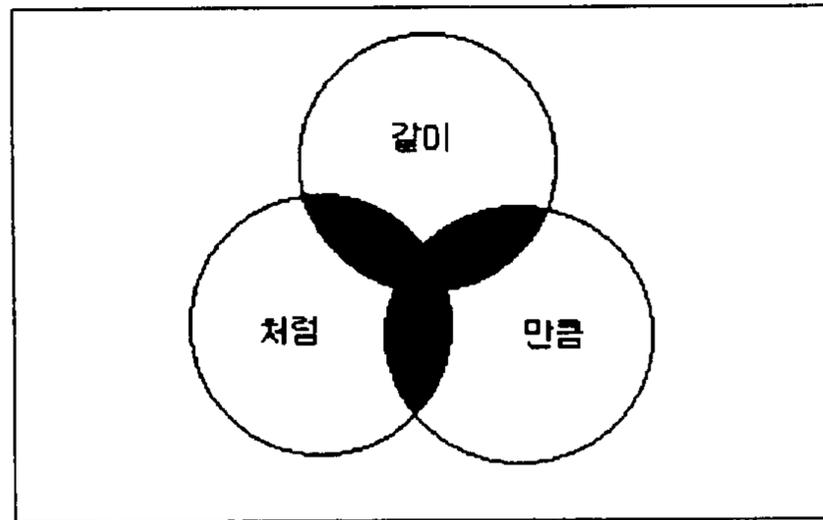
## 1.2.2 문제 제기

위에서 대비 조사의 범주 및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선행 연구를 정리한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의미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들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의미의 용법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연구가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량의 자료가 구축됨으로써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기보다 자료에 기반하여 문장의 유형화를 통해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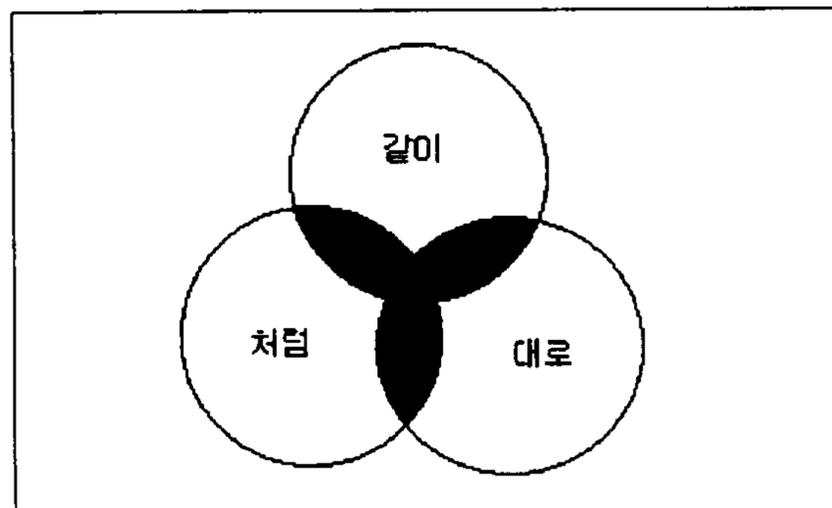
- (9) 명주는 무명 { 처럼/ 만큼/ 같이/ \*대로} 질기다.
- (10) 그의 몸이 활 { 처럼/ 만큼/ 같이/ \*대로} 휘어졌다.
- (11) 어머니는 자신의 말 { 처럼/ \*만큼/ 같이/ 대로} 겨우 한 짐을 던 채 그 해 가을에 쓰러지셨다.
- (12) 발을 어깨 넓이 { \*처럼/ 만큼/ \*같이/ \*대로} 벌려라.
- (13) 저 친구 오늘 얼마 { \*처럼/ 만큼/ \*같이/ \*대로} 약을 올려줄까?
- (14) 꿈은 꿈 { \*처럼/ \*만큼/ \*같이/ 대로} 현실은 현실 { \*처럼/ \*만큼/ \*같이/ 대로}두는 것이 좋아.
- (15) 아이고 또 지랄 { \*처럼/ \*만큼/ 같이/ \*대로} 딸이네.

위의 예문들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이들 조사들이 서로 어떤 문맥에서는 대치가 가능하며, 어떤 문맥에서는 대치가 불가능하다. (9)와 (10)은 ‘~처럼, ~같이, ~만큼’은 교체가 가능하나 ‘~대로’와는 교체가 불가능한 유형이고, (11)은 ‘~처럼, ~같이, ~대로’는 상호 교체가 가능하지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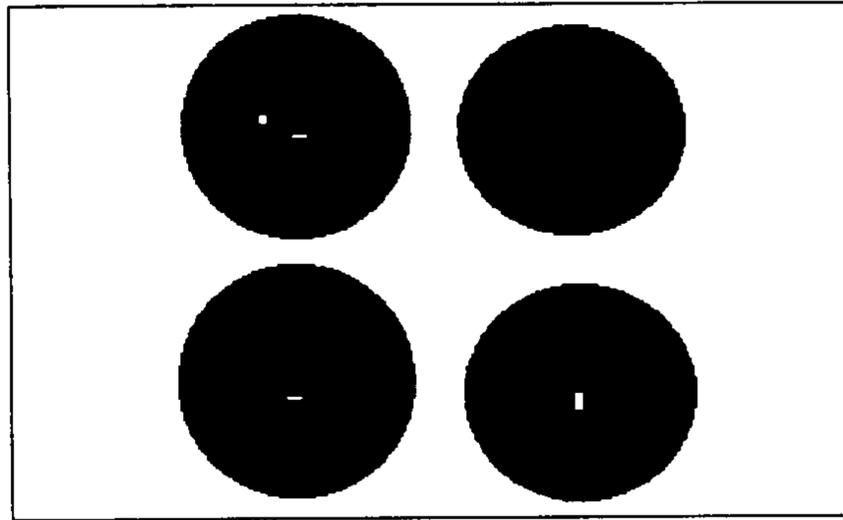
만큼'과는 교체가 불가능한 유형이다. 한편 (12)와 (13)은 '~만큼'만 가능한 유형이며, (14)는 '~대로'만, (15)은 '~같이'만 가능한 유형이다. 위의 문장들에 대한 조사의 교체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 ~처럼, ~같이, ~만큼’ 의 중첩 양상



<그림 2> ‘ ~처럼, ~같이, ~대로’ 의 중첩 양상



<그림 3> ‘~만큼, ~대로, ~처럼, ~같이’의 비중첩 양상

위와 같이 특정 문장에서는 교체가 가능하면서도, 또 특정 문맥에서 교체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조사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리라는 우리의 가정에 신빙성을 준다. 그러나 지시 대상이 명료하지 않는 문법 형태의 의미적 상관 관계는 개별 형태의 의미를 명확히 추출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 관계 양상을 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표면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이들 조사의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실제로 이들이 의미적으로 어떤 유사성을 이루는지 살펴 볼 것이다.

### 1.3 연구 방법

의미의 정의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설이 있었다.<sup>6)</sup> 특히 어휘소의 연구는 의미 연구의 중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어휘의 공시적인 의미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구조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어휘장 이론과 어휘의 성분 분석 이론에서 그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분 분석 이론은 한 어휘의 의미를 그 의미 자질의 복합체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의미 자질들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동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동음이의 관계, 다의 관계 등의 의미 관계 양상에 대한 설명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어휘소의 의미 자질을 포착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자질을 이용한 의미 관계의 파악은 이론적인 내용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sup>8)</sup>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사와 같이

---

6) 의미에 대한 정의는 의미를 보는 관점에 따라 지시설, 개념설, 자극에 대한 반응설, 용법설, 의의 관계설 등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채택하든 그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미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학자들은 의미의 층위를 나누어 접근하기도 하였다. Leech(1974)는 의미의 유형을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 정서적 의미(affective meaning),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 반영적 의미(reflected meaning), 연어적 의미(collocative meaning), 주제적 의미(thematic meaning)로 나누었고, Nida(1975)는 의미를 인식적 인자(cognitive factors) 대 정감적 인자(emotive factors), 언어 외적 인자(extralinguistic) 대 언어 내적 인자(intralinguistic)로 분류하였으며, Curse(1990)는 기술적 의미(descriptive meaning)와 표현적 의미(expressive meaning), 환기적 의미(evocative meaning)으로 분류하였다.

7) 단어라는 술어 대신 어휘소라는 술어를 사용하겠다. '단어(word)라는 술어는 그 정의도 막연하거니와 이에 대한 이해의 각도에 따라서 그 대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광해 1990 : 28). 그러나 인용할 때는 그 연구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8) Nida(1975)는 의미의 성분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봉착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차이를 기술할 메타 언어가 없다는 점, 둘째, 연접 집합을 구성하는 의미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어떤 단어들이 지니는 의미들은 수동적 어휘 속에만 존재한다는 점, 넷째, 어떤 어휘들은 일시적으로 강도나 정도에서만 다르다는 점, 다섯째, 관점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 여섯째, 무수히 많은 결합 관계와 잠재적 결합 관계로 인한 문제, 일곱째, 실재(entities)에 대한 성분 분석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질보다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기능 의미와 어휘 자체 내의 의미를 분리하기 어려운 어휘소의 경우는 의미 자질의 포착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의 성분으로서 자질의 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의미 분석에 있어서 의미 성분의 추출은 결국 그 분석 자체가 의미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 이상, 어휘 의미의 공통성과 변별성(시차 특성)이 입증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성광수 1998 : 361-362). 고창수(1997)에서도 한정된 수의 의미 자질로 한 어휘의 복잡한 의미 구조를 구현해 내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의미 자질이 열린 체계로 운영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한 어휘의 의미 자질을 열린 체계로 운영하게 되면, 자질 내역은 이상적 포화 상태를 이룰 것이다.<sup>9)</sup> 이러한 지적은 성분 분석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의미 기술에서 중요한 점은, 의미 자질의 수가 아니라, 추출된 의미 자질이 다른 어휘와의 시차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 자질인지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특히 기능과 분포의 유사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의미 영역을 이루고 있는 조사들 사이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는데 시차 자질의 설정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언중들이 사용한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조사의 의미 특성을 살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기반으로 추상적 의미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조작적인 연구 방법에 기대고 있으며, 연역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귀납적·기술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기술 의미론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언중들의 자료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연구는 문법적인 문장 뿐 아니라 비문이 포함될 수 있다는

---

9) '이상적 포화'란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두 어휘 항목(예를 들어 유의어나 동의어)이 있을 때, 이 두 어휘 항목이 서로 모든 자질 항목을 공유하면서 단 하나의 자질 원소의 차이나 그 유무로 구별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통사론적 연구가 아니라 의미론적 접근이라는 점과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의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만큼, ~처럼, ~같이, ~대로’의 의미 기능을 자료를 통해 추출하고 이들이 실제로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의미 영역의 어느 정도를 공유하며, 어느 정도로 차별적인지를 살펴 대등한 대상을 견주는 의미 영역에서 이들 조사의 의미 점유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sup>10)</sup>

먼저 제2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논의 진행을 위하여 ‘비교와 비유의 개념’을 정의하고, 표면 구조로 나타난 비교 표현과 비유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두 표현이 기저에서 그 견준의 대상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제3장에서는 문장의 유형 차이가 의미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각 조사의 용법을 유형함으로써 실제 문맥에서의 쓰임을 통해 개별 조사의 의미 특성을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들 조사들이 문장의 유형에서 교체 가능한 유형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이들 조사의 의미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10) <‘~만큼, ~처럼, ~같이, ~대로’의 분석 내용>

(단위 : %)

조사 항목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문장 수	비율						
비교표현	84	94.4	78	14.5	15	9.2	120	100
비유표현	5	5.6	460	85.5	148	90.8	0	0
총계	89	100%	538	100%	163	100%	120	100%

참고 1) 이 자료는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천만어절을 1,000어절로 축소한 자료이며, 이 중 조사 용법으로 쓰인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2) ‘이, 그, 저, 것’ 결합형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후고를 기대한다.

## 제 2장 이론적 배경

이 장은 3장과 4장의 논의를 위하여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비교 조사로 총칭하여 온 조사들에 대하여 그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이들 조사를 대비 조사 아래 비교 조사와 비유 조사로 하위 분류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먼저 이러한 제안의 근거로 비교 표현과 비유 표현이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들 조사의 의미 관계 양상의 논의 진행을 위하여 어휘소의 의미 관계 양상을, 특히 유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1 비교와 비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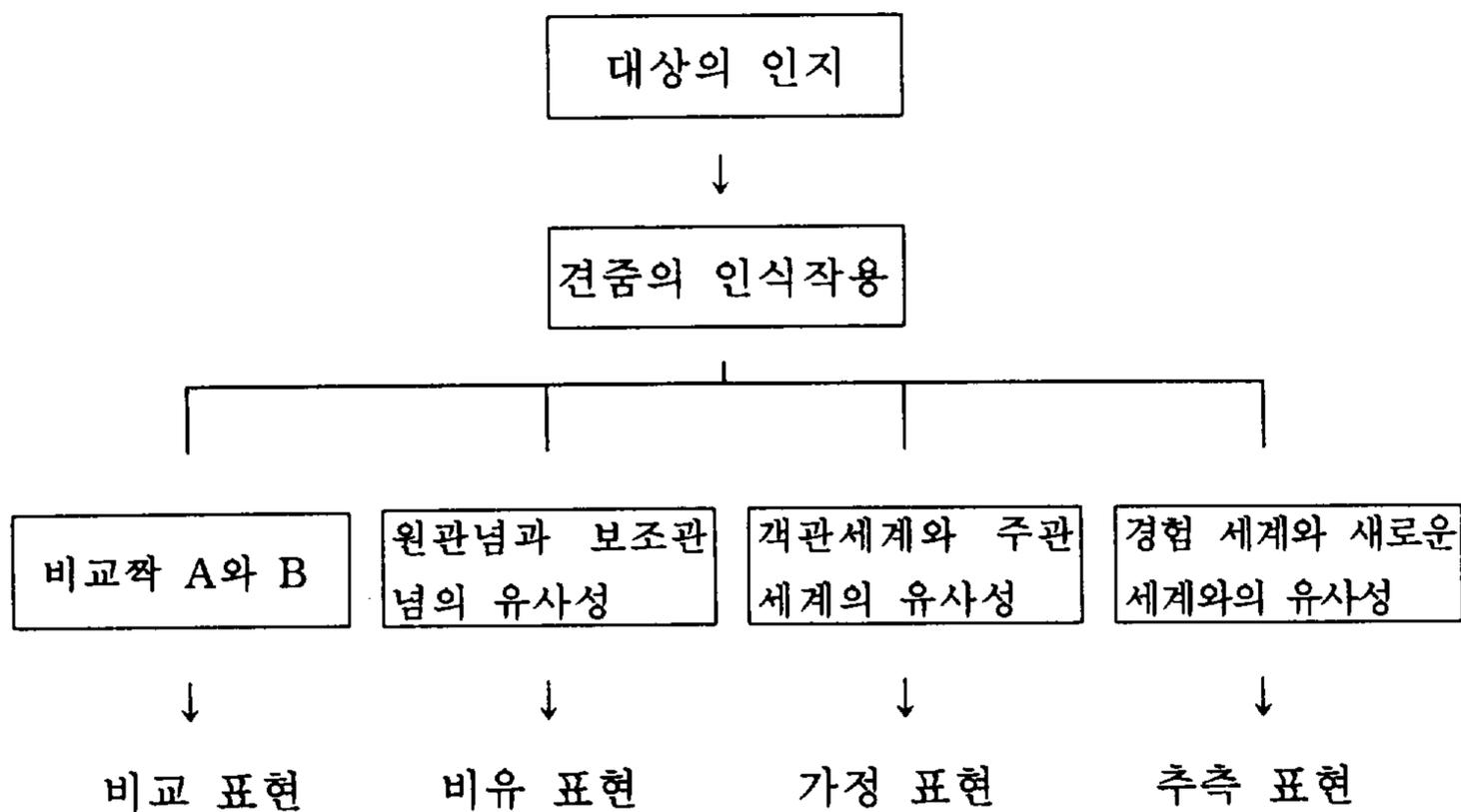
비교(견중)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비교 행위는 언어 현상만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지 활동에 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새롭게 접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물의 속성이나 사건의 양상과 관련하여 두 대상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여 정보를 구조화하는 것이다.<sup>11)</sup>

---

11) 물론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자 내재하는 주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판단이란 자기 중심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강정희 1992 : 3-5). 즉, 주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자신의 영역 안에 놓여 있는 것 하고만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주어진 동일 비교 대상들간에 유사성이 '있다/없다, 많다/적다'라는 서로 어긋나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판단자 자신의 주관-시각의 차이-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지 대상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처럼, ~같이' 등 비슷함이나 같음이 단지 정도의 차이인 어휘들의 차별적인 사용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즉, 화자는 자신의 주관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선택하기 때문에 '~처럼, ~같이'의 특별한 변별 의미가 포착되지 않는 것이다.

김봉모(1990)는 견중(비교)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의 잘 알려지지 아니한 막연한 사실에 대해 들을이에게 비교적 익숙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비교하여 그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비교를 언어 표현 측면에서 본 것으로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비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강정희(1992)는 비교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교작'과 '유사성'을 들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가정, 추측, 비유 표현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이들 표현의 기저에는 '비교'라는 인식 작용이 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이라는 인식 과정의 기저에는 객관 세계와 주관 세계, 주어진 사실과 가정되는 사실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며, '추측' 역시 경험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비교의 짝으로 전제되고, 이들 사이에 유사성이나 개연성이 전제되며, 비유 표현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내재하는 유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견중의 인식 작용과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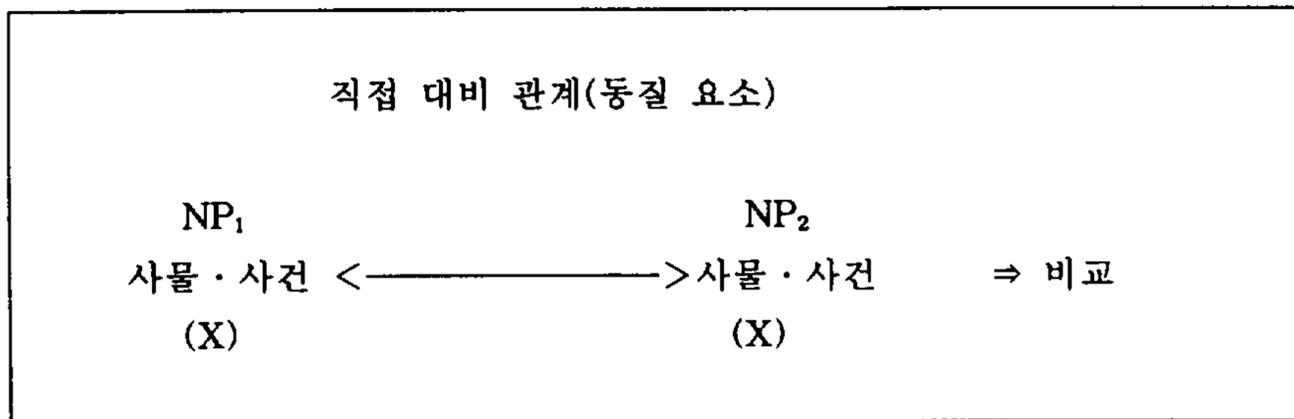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사 형태 중에서 ‘~처럼’과 ‘~같이’ 등은 주로 비유 표현을 보이고 있는데, 기저에 견중의 인식 작용이 있다는 점이 순수한 비교 표현과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두 표현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비교 조사로 총칭하기보다는 비교 표현에 주로 쓰이는 조사와 비유 표현을 위해 주로 쓰이는 조사를 따로 분류하고 이 두 조사의 상위 개념으로 대비 조사라는 용어를 설정하겠다.

- (16) a. 그 사람에게 대한 기억이 안개처럼 사라져 갔다.  
 b.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왔다.  
 c. 돼지같이 먹는다.  
 d. 사냥꾼을 본 토끼는 번개같이 도망을 갔다.
- (17) a. 오늘 읽은 책도 어제 읽은 책만큼 어렵다.  
 b.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c. 우리의 예상대로 그녀가 범인이었다.

(16a)는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을 ‘안개’에 직접 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져 가는 기억의 속성’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안개가 희뿌옇게 흩어지는 모양’을 빌어 표현한 것이며, (16b)도 역시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몰려다니는 구름의 속성’을 빌어 표현한 것으로, 두 대상의 유사한 속성이나 모양을 포착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17a)나 (17b)는 대비의 주체인 ‘오늘 읽은 책’을 ‘어제 읽은 책’과 직접 견주는 표현으로 두 대상은 동질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동질 요소가 순수한 비교 표현의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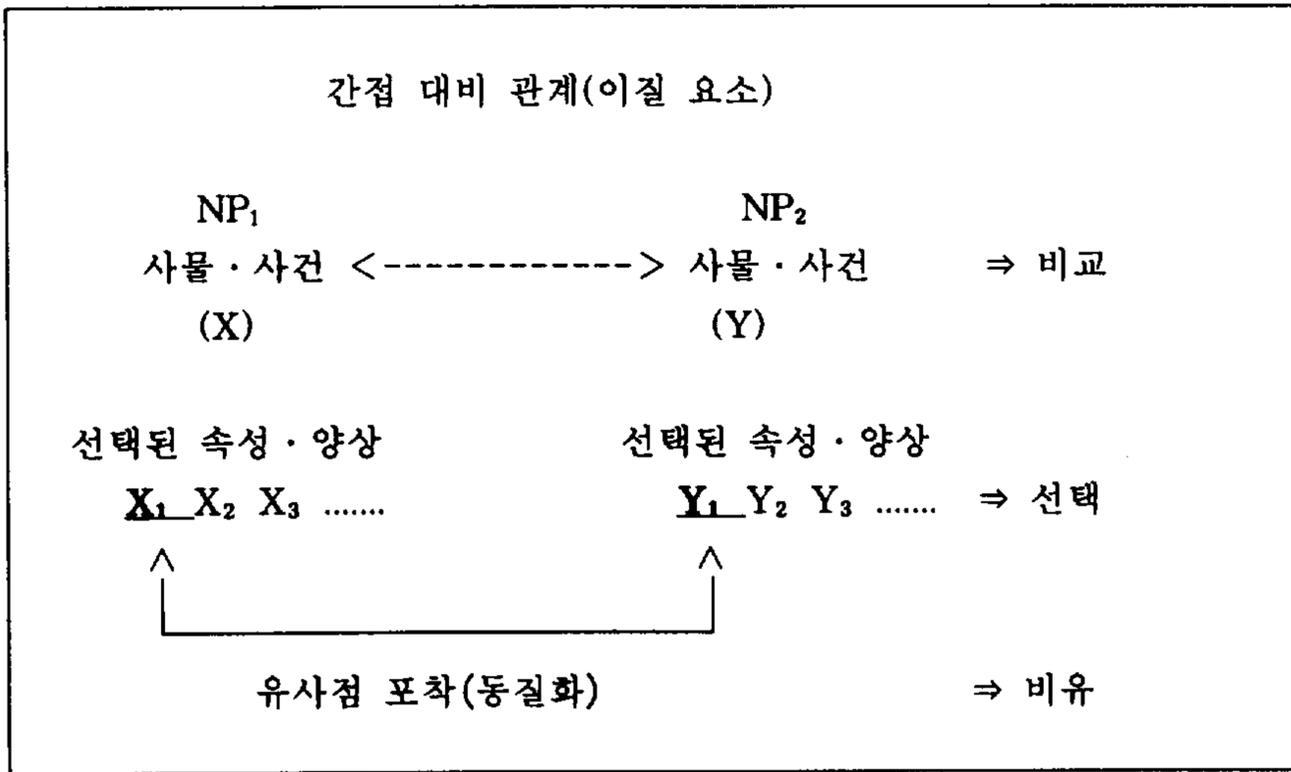
비교 표현과 비유 표현의 공통점은 기저에 견중의 인식 작용이 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대비되는 짝이 동질 요소인지, 이질 요소인지에 관련된

다. 기본적으로 비교란 공평성을 전제한다.<sup>12)</sup> 즉 비교 표현은 동질 요소의 공평한 견증을 전제한다면, 비유는 이질적 요소의 견증에서 나온 표현이다. 즉, 질적으로 다른 대상은 직접 견줄 수 없고, 두 대상에서 특성의 상태나 속성 등의 유사점을 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비유는 비유 내용이 문장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유 중에서도 직유 표현이다.<sup>13)</sup> 비교 표현과 비유 표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그림 5> 비교 표현의 과정

- 12) 우리는 보통 '내 연필이 동생의 연필보다 길다'거나 '내 안경보다 네 안경이 구식이다'는 표현은 사용하지만, '네 시계가 내 안경보다 구식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비교란 비교되는 두 대상이 질적으로 공평해야 하는데, '안경'과 '시계'가 비교되었을 경우 공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 13) 은유에 대한 이론 중에서 비교론은 직유 표현과 은유 표현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 하는데 직유는 비유 내용을 화자가 그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화자 중심적 표현이며, 은유는 비유 내용을 청자가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자 중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14) 비교 표현의 과정은 대비 주체(X<sub>1</sub>)와 대비 대상(X<sub>2</sub>)이 동질 요소로, 이러한 동질 요소는 비교 표현의 전제 조건이다. 여기서 대비 주체와 대비 대상의 직접적인 견증의 차원이기 때문에 두 대상의 견증을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비유 표현의 과정은 대비 주체(X)와 대비 대상(Y)이 이질적인 요소로, 이러한 이질적 대상에서 상호 유사점을 포착하여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비 주체와 대비 대상은 직접적인 견증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대상의 견증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6> 비유 표현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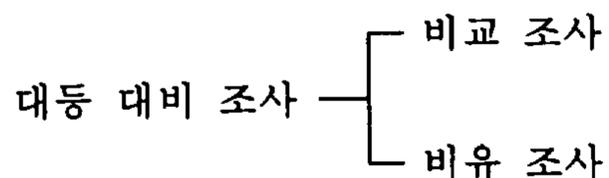
대비 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교 표현과 비유 표현의 차별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sup>15)</sup> 그러나 자료를 통해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럼’과 ‘~같이’ 구문의 대부분은 비유적 표현이었다.

- (18) a. 시어머니는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 꼬리만 졸졸 따라 다녔다.
- b. (아내가) 고양이처럼 요즘 와서 부쩍 투정이 늘었던 말이야.
- c. 작부들은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뱀을 본 개구리같이 몸을 피하곤 했다.

(18a)는 천진한 얼굴을 하고서 따라 다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갓난아

15)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은유와 마찬가지로 직유 역시 언어학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관례였던 점과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당대 언중들의 자료에 기반하기 보다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기의 모습과 행동에 비유한 것이지 시어머니를 직접 갓난아기에 비교한 것이 아니다. (18b) 역시 아내의 투정부리는 모습을 고양이의 속성을 빌어 비유한 것이고, (18c)는 몸을 피하는 행위를 ‘뱀을 본 개구리’에 비유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어머니의 행동과 갓난아기의 행동을 견주는 심리적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즉, 견준의 인식 작용에 의해 사물이나 사건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표현은 동질적 요소의 직접 견준에 의한 비교 표현과 이질적 요소의 간접 견준인 비유 표현이 있다. 그리고 이들 표현에 주로 쓰이는 조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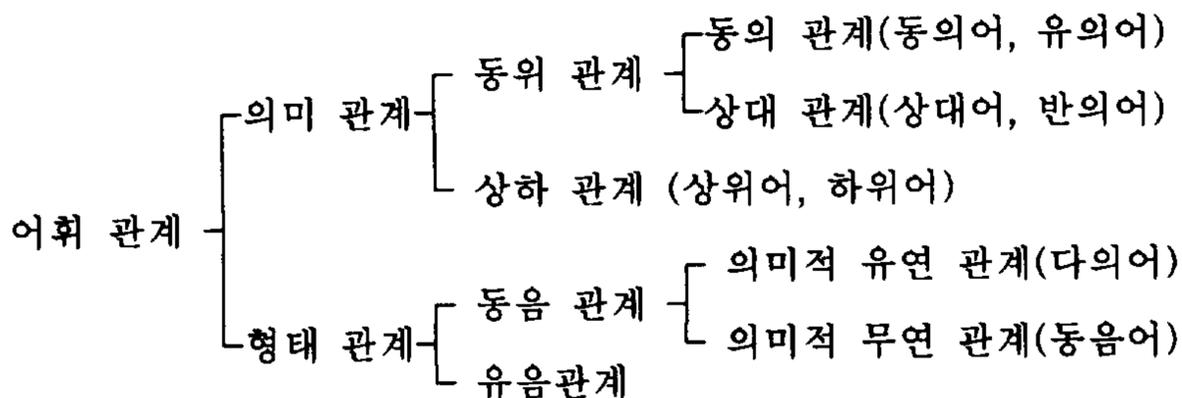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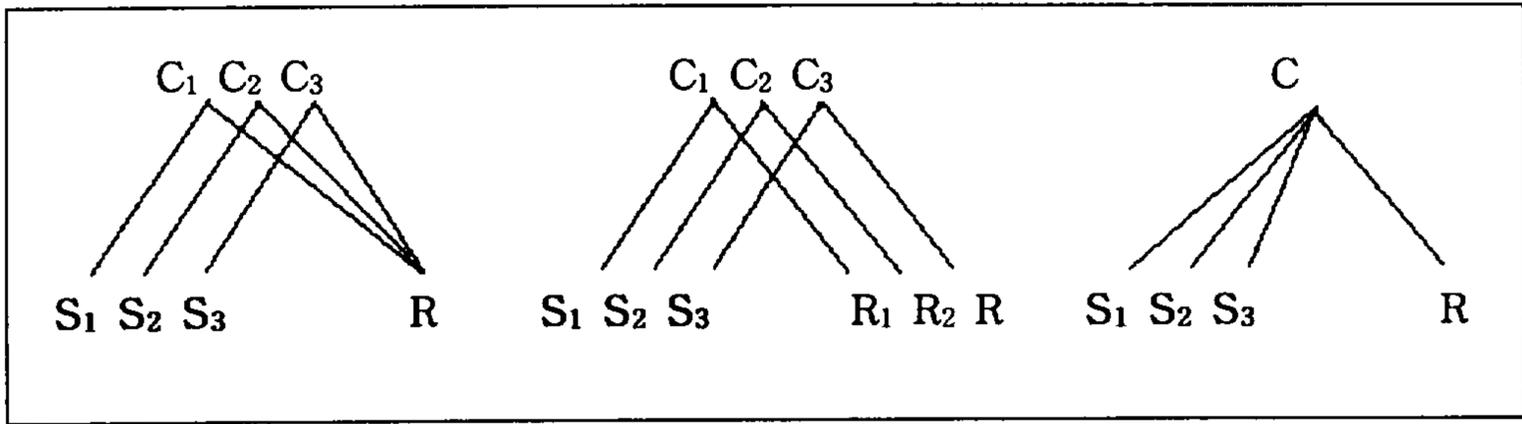
## 2.2 의미 관계의 양상과 유의 관계

김종택(1993)은 어휘소들의 어휘 관계를 형태 관계와 의미 관계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어휘 기호의 관계 양상에 대해서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것이다.<sup>16)</sup> 물론 의미 관계 역시 그 내용은 가시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형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형태 관계는 형태의 동일함에서 출발하지만 의미 관계는 서로 다른 어휘들이 특정한 의미 영역 내에서 맺는 내용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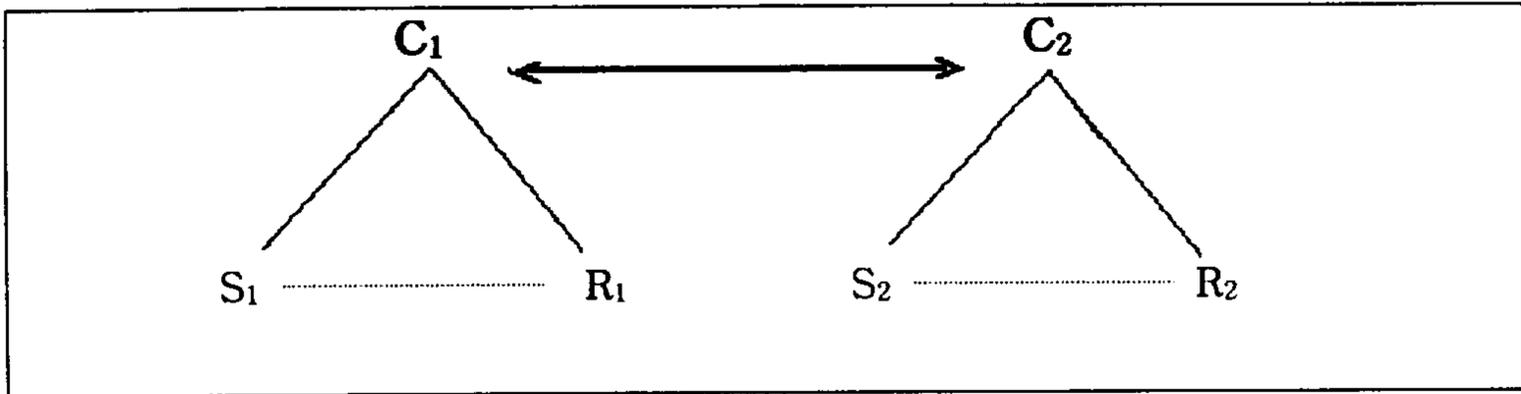
김광해(1990)는 Ogden & Richards(1923)의 의미 삼각도를 응용하여 의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어휘소 사이의 의미 관계를 논의할 때 의미 관계란 어휘소(L<sub>1</sub>)와 어휘소(L<sub>2</sub>)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때 세 꼭지점 중에서 무엇이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주요 요인인가에 따라 유의 관계(S<sub>1</sub>과 S<sub>2</sub>의 관계), 반대 관계(C<sub>1</sub>과 C<sub>2</sub>의 관계), 상하 관계(R<sub>1</sub>과 R<sub>2</sub>의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관계에 대한 그림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 김종택(1993)은 어휘는 특정한 어휘장(lexical field)속에 놓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어휘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의미 관계와 형태 관계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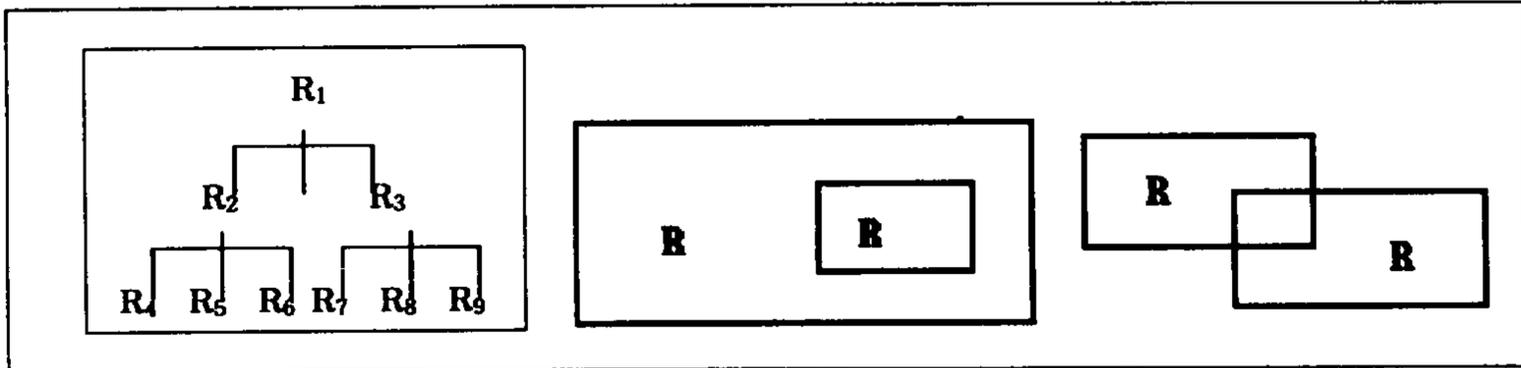




<그림 7> 기호 사이의 관계 (S<sub>1</sub> : S<sub>2</sub>) : 유의 관계



<그림 8> 개념 사이의 관계 (C<sub>1</sub> : C<sub>2</sub>) : 반대 관계



<그림 9>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 (R<sub>1</sub> : R<sub>2</sub>)

: 상·하의 관계, 부분·전체 관계, 공유관계

※ 여기서 C는 concept(개념), S는 symbol(기호), R은 referent(지시 대상)으로 의미 삼각도의 세 꼭지점이다.

유의 관계는 특히 기호(Symbol)의 문제인데, 기호들 사이에 유의 관계가 생기는 이유에 따라 지시 대상의 동일성에 의한 유의 관계, 지시 대상의 불확실성에 의한 유의 관계, 개념과 지시 대상의 동일성에 의한 유의 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지시 대상의 불확실성에 의한 유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은 지시 대상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화자의 주관 이 개입될 소지가 있거나 하여 이를 지시하는 언어 기호 자체가 또한 불확실한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이 유형이 유의 관계를 다루는 작업자들을 가장 난감하게 하는 유형이다(김광해 1989). 이러한 어려움은 지시 대상물이 없는 어휘들의 경우 필연적으로 노정되기 마련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사의 경우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ida(1975)는 상이한 어휘들이 서로 관계를 이루는 양상을 포함 관계(inclusion), 중첩 관계(overlapping), 상보 관계(complementation), 연결 관계(contiguity)로 분류하였다.

포함 관계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으로 포함되는 의미(하위 부류)는 포함하는 의미(상위 부류)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 자질을 가져야 한다. 이 유형은 보통 상위어와 하위어의 의미 관계 유형이다.

중첩 관계는 보통 유의어(Synonym)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든 문맥에서 상호 치환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문맥에서 상호 치환이 가능한 것이므로 의미상 동질은 아니다. 즉 유의어는 공통 의미와 차별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볼 때, 어휘들이 중첩 관계를 이룰 것이다.<sup>17)</sup>

상보 관계는 공통된 의미 자질들을 포함하지만 일정한 유표적 대조

17) 유의 관계의 양상을 이루는 유형 중에서 우리말 고유어와 한자어들 사이에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연구(김광해 1989 : 123-124)도 있으나, 고유어 의미 영역 내에서 한자어들의 의미 분할 현상은 특수한 경우이며, 유의어 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은 중첩 양상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marked contrast)를 보여 주는 것으로 주로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관계 양상이다. 공통 의미와 차별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첩 관계와 비슷하나 차별적인 의미 자질이 유표적 대조를 보인다는 점이 중첩 관계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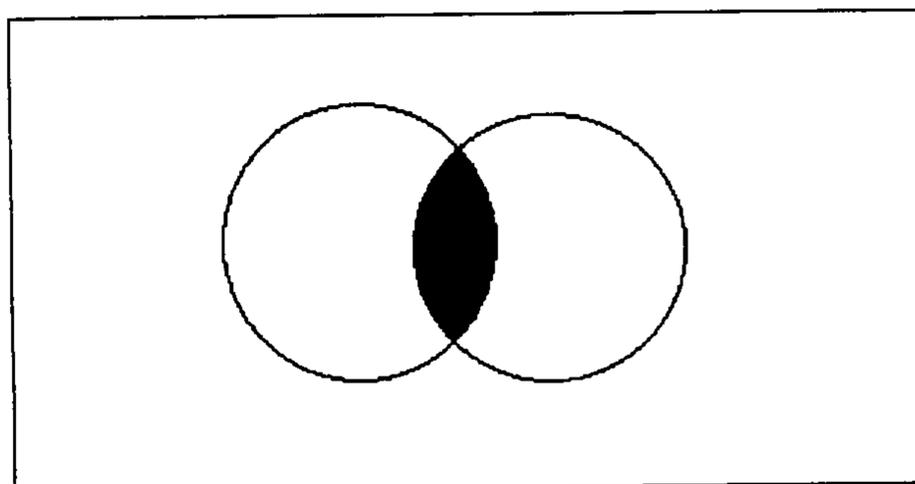
연접 관계는 분명하고 한정된 의미 영역(semantic domain)을 차지하면서 선명한 대조(contrast)를 보이는 근접한 관계 의미들 사이의 관련성을 갖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일정한 공통 자질들(common features)을 공유함으로써 단일한 의미 영역을 차지하지만, 개개의 의미는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자질에 의해 다른 관계 의미들과 뚜렷이 변별된다. 즉, 여기서 공통 자질은 어휘들 자체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단일한 의미 영역 안에 존재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자질이다. 예를 들어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등은 [대비]의 의미 영역에서 [대등]의 의미 자질에 의해 ‘~보다’의 [차등] 자질과 하위 경계를 이룰 것인데, 여기서 [대비]와 [대등]의 자질은 특정 조사의 어휘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의 의미 영역에 분포됨으로써 공유하는 자질이다.

연접 관계에 있는 어휘들의 공통 자질을 종종 유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의 공통 자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유의 관계를 이루는 공통 자질이 어휘 자체에 내재하는 의미 자질인 반면, 연접 관계에 있는 어휘들의 공통 자질은 단일 의미 영역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자질이라는 점이 다르다.<sup>18)</sup>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비 조사의 [차등·대등]이나 [비교]와 [비유] 등은 어휘 자체의 의미 자질이라기보다 단일 의미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첩 관계는 어휘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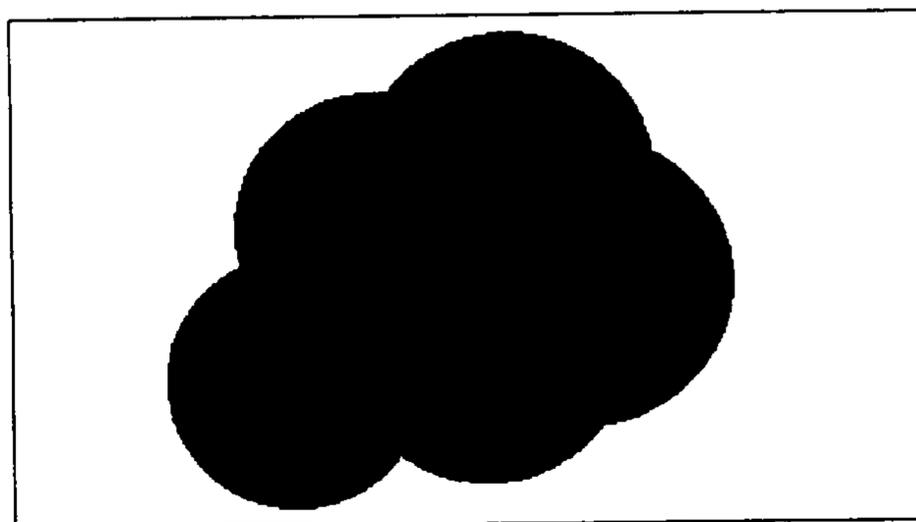
---

18) 의미 영역은 중요한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 모종의 의미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언어에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수백 개의 의미 영역이 존재한다. 다소 밀접히 관련된 의미들을 포함하는 아주 적은 영역이 있는가하면 수백 개의 의미들을 포함하는 매우 큰 의미 영역도 있다(Nida 1975 : 182-183). 공유하는 의미 자질이 많을수록 의미적으로 밀접해지고, 그럴수록 의미 집합의 수는 적어질 것이다.

의미 자질이 실제로 겹치는 관계이지만 연접 관계는 특정 어휘들이 단일한 의미 영역 안에 존재함으로써 의미적으로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3차원의 공간에서 보면 이들은 서로 겹쳐 있지 않다. 연접 관계와 중첩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의미의 중첩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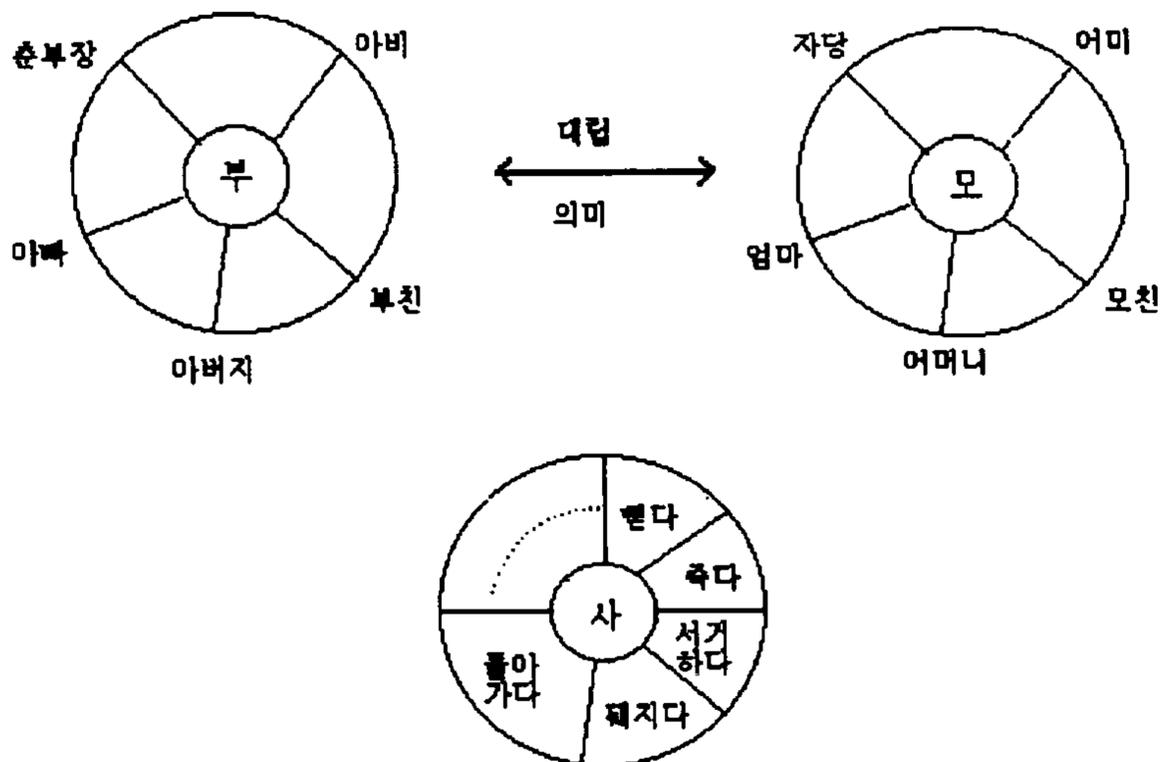


<그림 11> 의미의 연접 관계

### 2.2.1 의미 영역

어휘소의 유의 관계의 논의에서 의미 영역은 전제 조건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왜냐하면 단어 개개의 의미는 그것의 개념상의 인접어가 갖는 의미

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석주 1981 : 11). 즉 어떤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인접어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 개념 영역을 덮고 있는 단어의 덮개나 빈틈 없는 기호의 외투(外套)라는 그 전체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명칭(name)은 그 대상을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붙인 것이라기보다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단어 각각은 개념적으로 공통된 요소를 지닌 단어의 공속적(共屬的)인 장(field)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라고 본다(이석주 재인용 1981). 이 의미 영역 이론에 따르면, 동의의 의미 영역을 하나의 구형(球形) 영역 개념으로 보면, 핵심 의미는 중심점에 위치하고 거기에서 의미가 강한가, 문어적인가, 감성적인가, 유아어인가, 방언적인가, 존대어인가 등등에 따라 의미가 위치를 잡게 되고, 여기에 대립 의미, 유의 의미 등과 관련한다(이석주 1981 : 12). 그림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어휘의 언어역 양상

그러나 이러한 의미 영역 논의는, 한 영역에 속하는 언어의 범위나 그 내부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는 점, 어휘의 의미 구조로서 예상되는 모든 구조형을 기술하는 포괄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상의 어느 일면만을 문제 삼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등의 모순성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한다(이석주 1981 : 12).

Nida(1975)는 의미 영역(semantic domain)은 일정한 의미 성분들을 공유하는 의미 집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부 영역들은 언어외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논리적 범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들도 어떤 선형적인 명명법(nomenclature)이나 분류법(taxonomy)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언어에 있어서 의미 영역은 단순히 공통된 의미 성분들을 지니는 의미들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영역이 얼마나 적절하며 또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계층적 구조내의 어떤 층위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그 언어의 전체 의미 구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 영역은 거의 모든 언어에 보편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에는 실재, 사건, 추상, 그리고 관계라는 의미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의미 집합들이 모든 언어에서 상응하는 문법적 부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 영역의 분류는 문화적으로 관련된 대상의 차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상징이 지니는 의미 사이의 경계를 한정하는 개념적 대조 다발의 일부가 되는 자질들에 의존한다(Nida 1975 : 185-186). 의미 영역과 관련한 Nida(1975)의 이러한 지적은 언어 연구에서 실제 지시물과 언어 상징으로써 언어 자체의 의미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등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들을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들

로서 하나의 의미 영역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일의 의미 영역도 좀 더 세분된 의미 자질에 의해 비교와 비유의 의미 영역으로 내부에 경계지어진 더 작은 의미 영역이 존재할 것이며, 어떤 어휘들은 단일 의미 영역 내에서 상호 공유 자질을 점유하는 중첩 양상을 이루거나 연접 양상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소들의 의미 관계의 양상은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존재한다기보다 다양한 의미 유형이 다차원의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어휘는 특정 어휘와 중첩 관계를 이루면서, 또 다른 어휘와는 연접 관계를 이루는 등 이러한 복잡한 의미 관계 양상이 다차원 공간에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등이 기능과 분포가 동일하므로 단일한 의미 영역을 형성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이며, 그러한 의미 영역 내에서 개별 조사들이 어떻게 세분된 의미 영역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별 조사의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인데, 개별 조사의 의미 추출은 3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2.2.2 유의 관계의 성립 조건

기능과 분포가 동일한 환경에서 단일한 의미 영역을 이루는 어휘들은 유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미 영역과 관련해서 살펴 보았듯이 이들이 우연히 단일의 의미 영역에 분포할지라도 연접 관계를 이룬다면 유의 관계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떤 어휘들이 상호 유의 관계를 이루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겠다.

어휘소들 사이의 유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용어에 관한 문제로, Synonym을 동의어로 지칭할 것인가, 유의어로 지칭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고, 둘째는 과연 어휘들이 유의 관계로 성립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문제는 의미의 동일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의미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른 문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Nida(1975)는 의미가 중첩되는 단어들에 대한 논의에서, 마치 단어들이 중첩되는 것처럼 다루지만 사실은 그러한 단어들이 지니는 특정 의미들이 중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peace(평화)'와 'tranquility(평정)'가 유의어라 할 때 실제 의미하는 바는, 물리적 평온 상태 및 심리적 평온 상태 또는 그 어느 한쪽을 포함하는 'peace'의 하나의 의미가 또한 이러한 상태를 포함하는 'tranquility'의 의미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때 'peace'의 의미를 전쟁의 부재 또는 휴전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들 사이의 구별은 'peace conference(평화 회의)'와 같은 일반적 표현을 '\*tranquility conference'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 표현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해진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당연히 어휘소들의 의미들이 더 작은 단위인 자질의 다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유의 관계의 성립 역시 어휘소 전체의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의미 자질들의 관계임을 지적한 것이다. 보통 유의어라고 분류되는 어휘들이 어떤 유형의 문맥에서는 상호 치환이 가능하나, 또한 어떤 유형의 문맥에서는 상호 치환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어휘의 어떤 특정한 의미 자질들이 그러한 문맥에서 의미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어라는 용어를 채택하겠다.<sup>19)</sup>

둘째, 유의 관계의 성립 조건과 관계되는 문제로, 유의어 논의에서 가장

---

19) 유의어라는 용어는 어휘소 사이의 의미를 기술할 때 그 시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택했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어휘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면 어느 정도 유사할 경우 이들을 유의어로 볼 것인가, 또 다르다면 어느 정도 다를 경우 유의어로 볼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다.<sup>20)</sup>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의 관계는 논리학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의미 관계이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학자들마다 명확한 성립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여러 가지 성립 가능한 환경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Cruse(1986)는 동의어들은 고도의 의미 중첩을 나타내야 할 뿐 아니라 낮은 정도의 내재적 대조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동의어들은 그 의미들이 중심적인(central) 의미 특성에 관해 동일하지만 중요하지 않는(minor) 또는 주변적(peripheral)의 의미 특성만이 다른 경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역시 기술적인 정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의어의 성립 조건으로 사용하기에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기술적 정의는 무수히 많으나, 실제 성립 조건으로 사용될 만한 틀은 많지 않다.

김광해(1989)는 유의 관계의 성립 조건을 통사적 원칙과 의미적 원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성립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통사적 원칙 : 두 개 이상의 단어에서 유의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들의 통사 범주가 동일해야 한다.

의미적 원칙 : 두 개 이상의 단어에 유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두개 이상의 단어들은 하나 이상의 의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

20) 어떤 어휘들은 의미적으로 매우 밀접하며, 어떤 어휘들은 의미적으로 좀 더 소원하듯이 유사성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유사성의 정도는 실제로 연속적으로 퍼져 있고 그 유사성의 영역이 점점 작아져서 어느 순간 유사성이 Zero인 점을 만나면 유의 관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Cruse 1986 : 328-33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어휘소 대 어휘소의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의미 자질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유의 관계의 성립 조건 : 두 개 이상의 단어에서 유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단어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장에서 그 전체의 진리치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감정적 의미 또는 환기적 의미 등은 문제삼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진리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진리치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문장의 진리치를 측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또한 모든 문장에서 진리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전통 논리학의 문제로 깊게 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객관성 있는 척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하여 이러한 단어들을 처리함에 있어 엄밀한 기준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이러한 기준에 의해 유의어로 처리될 수 있는 단어들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김광해 1989).

위와 같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유의어의 성립 조건을 대신하겠다.

첫째, 동일한 진리 조건을 만들 것.

둘째, 동일한 의미 영역 내에 분포하며, 하나 이상의 의미 자질을 공유할 것.<sup>21)</sup>

셋째, 특정 문장 유형에서 상호 치환이 가능할 것.

---

21) 의미 영역(semantic domain)이라는 개념은 어휘장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다. Nida(1975)는 의미 영역은 일정한 의미 성분들을 공유하는 의미 집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의미 영역이 얼마나 적절하며 또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계층적 구조내의 어떤 층위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그 언어의 전체 의미구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영역의 특징은 그 크기, 계층적 층위, 다양한 구성원 자격, 원어휘소(archilexeme), 다른 영역과의 경계에 의하여 가장 잘 기술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환경에서 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동일할 것.

동일한 진리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문장일지라도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의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결점은 다른 조건들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즉, 동일한 통사 환경에서 항구적으로 상호 치환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통된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 2.2.3 유의 관계의 검증 방법

어떤 어휘들이 유의어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으로 대치 검사(substitution test)와 반의어를 이용하는 방법, 어휘 나열법 등이 많이 이용된다.

대치 검사는 유의어라고 인지되는 어휘 쌍들이 상호 교체가 가능한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즉,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이 어떤 문맥에서는 상호 교체가 되며, 어떤 문맥에서는 교체될 수 없는지 검사함으로써 의미의 공통 자질과 시차 자질을 찾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맥을 이용하는 대치 검사는 어떤 의미 특성은 공유하지만, 어떤 의미 특성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물론 비교되는 두 어휘만 다르고 모든 환경이 동일해야 한다.

---

22) 하나 이상의 문장에서 항구적으로 상호 치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대량의 자료를 통한 용례를 이용해서 밝힐 수 있다. 이 방법은 우연히 특정 문맥에서 상호 교체가 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

- (19) a. 뒤돌아 볼 {틈/겨를}이 없다.  
 b. 문{틈/\*겨를}에 연필이 빠졌다.

예를 들어 ‘틈’과 ‘겨를’은 예문 (19a)에서는 상호 교체가 가능하나, (19b)에서는 의미의 차별성이 현저하게 드러나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치 검사에 의해 ‘틈’과 ‘겨를’이 [+시간] 자질을 공통 자질로 공유하지만, ‘틈’은 [+공간] 자질을 변별 자질로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의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해당 어휘소의 반의어를 찾아냄으로써 그 어휘에 내재된 차별적인 의미 특성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깊은’은 ‘깊은 이치’에서는 ‘심오한’과 의미가 중복되지만 ‘깊은 물’에서는 중복되지 않는다. ‘깊은 이치’의 반의어는 ‘피상적 이치’이지만 ‘깊은 물’의 반의어는 ‘얕은 물’이기 때문이다(남성우 1972 : 75-76).

유의어를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유의어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해서 그것들이 가진 시차적인 의미나 뉘앙스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도를 나타내는 말들인 ‘조금, 꽤, 제법, 상당히, 썩, 여간’ 등을 나란히 나열해 놓고 공통된 의미소를 추출하는 반면, 개개어가 가진 독특한 의미를 상대적으로 대비하여 찾아내는 방법이다(천시권·김종택 1982 : 141-142).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만큼, ~처럼, ~같이, ~대로’와 같이 어휘 내재적 의미와 기능 의미를 분리하기 어려운 어휘소의 경우는 반의어를 상정하기도 어려우며, 어휘 나열법도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특정 문맥에서 대치 검사가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만으로 어떤 조사들이 유의어 관계를 이룬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감이 있다. 특정 문맥에서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하여 이들 조사를 유의어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직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기진(1987)에서도 동일한 문맥에서의 대치 가능성 또는 교체 자유성이라는 요인만을

가지고 동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동의 관계에 있는 A, A'에서 A'와 A는 진정 하등의 의미 차이도 없는 것인가?

둘째, 하등의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A-A'의 공존은 무슨 의미인가?

강기진은 그렇기 때문에 한 어휘란 대치 가능성이나 교체 가능성에 의해서만 조성되지 않고 그 기저적인 심층 의미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의어 쌍을 이룬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치 검사에 의해 상호 교체가 가능하더라도 2.2.2에서 살펴본 유의어 성립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문장들이 동일한 진리 조건을 만드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실제 언중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한 다양하게 유형화하여 의미를 추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직관에 의한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제 3장 대등적 대비 조사의 의미 특성

이 장에서는 개별 조사의 의미를 문장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 보겠다. 문장의 유형은 의미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화를 통하여 미세한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유형이 공유하는 의미 특성을 찾아냄으로써 개별 조사의 의미 특성을 기술할 것이다.

### 3.1 ‘~만큼’의 유형과 의미 특성

현재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만큼’에 대한 뜻풀이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sup>23)</sup> 사전 내용의 뜻풀이는 한결같이 ‘정도가 비슷하거나 그에 육박함을 나타내는 말 또는 일정한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뜻풀이는 지나치게 모호하여, ‘~만큼’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외국인들이나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해 사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지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문장에서의 기능과 분포, 그리고 이들 형태와 공기하는 어휘를 통해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문법 형태의 경우, 문형의 차이는 의미를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문형의 유형화를 통한 의미의 도출은 문법 형태의 의미 도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만큼’이 어떠한 환경에서 쓰이는지 문장을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만큼’의 의미에 접근할 것이다.

---

23) 이 연구에서는 조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존 명사로 분류한 「우리말 큰사전」과 「조선말 대사전」은 제외했다.

<표 2> ‘~만큼’의 사전 뜻풀이

정보 사전	품사	설명내용	예문
국어대사전 (김민수 외, 금성출판사, 1992)	조사	· 정도가 비슷하거나 그에 육박함을 나타 내는 말	· 이 꽃도 그 꽃만큼 예쁘다. ·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다. · 맵쌀은 찹쌀만큼 차지지 못하다. · 이만큼 재미있는 책은 없 다.
새우리말큰사전 (신용철 외, 삼성출판사, 1992)	조사	· 체언 다음에 쓰이어 일정한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말	· 맵쌀은 찹쌀만큼 차지지 못하다. · 산이 높기로소니 하늘만큼 높을 소냐?
국어대사전 (이희승 외, 민중서림, 1994)	조사	· 체언 밑에 붙어 그 말과 거의 같은 한도·수량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누구나 너만큼은 할 수 있 다.
국어대사전 (남광우 외, 삼성문화사, 1991)	조사	·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쓰이어 일정한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말	· 명주는 광목만큼 질기지 못하다.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조사	· 체언 뒤에 붙어서 ‘정도 가 거의 비슷함’을 나타 내는 부사격조사	· 나도 너만큼 달릴 수 있다.

### 3.1.1 ‘~만큼’ 구문의 유형

<표 2>에 나타난 ‘~만큼’의 사전 뜻풀이는 ‘~만큼’ 구문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자세히 보여 주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의미 차이를 살펴 보겠다.<sup>24)</sup>

- (20) a. 이 책만큼 재미있는 책은 없다.  
⇒ [ NP<sub>1</sub>만큼 VP ] NP<sub>2</sub>가 없다
- b. 이 꽃도 저 꽃만큼 예쁘다.  
⇒ NP<sub>1</sub>이 NP<sub>2</sub>만큼 VP
- c.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다.  
⇒ NP<sub>1</sub>이 NP<sub>2</sub>만큼 VP
- d.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 NP<sub>1</sub>이 NP<sub>2</sub>만큼 VP
- e. 배정된 양만큼 수매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NP<sub>1</sub>이 NP<sub>2</sub>만큼 VP

(20)에서 ‘~만큼’의 의미는 미세하게나마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문장의 유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장의 유형화와 의미 차이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b)와 (20c) (20d) (20e)는 표면적으로 문장의 유형은 동일하다. 그러나 (20b)와 (20c)는 공기하는 서술어가 상태동사와 동작동사로 환경이 다르고, (20d)와 (20e)는 ‘~만큼’이 결합하는 NP<sub>2</sub>의 성격이 다르다. 자료를 통해 미세하게나마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4) NP<sub>1</sub>은 대비 주체, NP<sub>2</sub>는 대비 대상, VP는 대비 내용이 된다.

<유형 1> : [NP<sub>1</sub>만큼 VP] NP<sub>2</sub>]가 없다

이 유형은 'NP<sub>1</sub>이 대비 대상 중에서 대비 내용인 VP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유형은 대비 주체인 NP<sub>1</sub>이 대비 표지와 결합한다는 점과 의미상의 대비 대상인 NP<sub>2</sub>가 NP<sub>1</sub>을 포함한 전체 집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21) 텔런트 공채 어느 기수 중에서도 19기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NP<sub>2</sub>) (NP<sub>1</sub>) (VP)

기수는 없다.

(22) a. 텔런트 공채 기수들이 활동을 한다(NP<sub>2</sub>)

b. 19기가 활발한 활동을 한다(NP<sub>1</sub>)

즉, (22a)와 (22b) 두 문장이 결합된 것으로 여기서 NP<sub>2</sub>인 (22a)는 NP<sub>1</sub>이 포함된 동일 층위의 집합으로, NP<sub>1</sub>과 NP<sub>2</sub>가 동질 요소이므로 비교 표현이다. 여기서 'VP'에 해당하는 '활발한 활동의 정도'를 'NP<sub>1</sub>만큼'이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와 결합하여 NP<sub>1</sub>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문장의 의미가 도출된다. 몇몇 예를 더 보자.

(23) a. 고향만큼 유어(類語)가 많은 말도 드물다.

b. 연예인들의 '겹치기 출연' 문제만큼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실상을 잘 말해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c.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나라 사람만큼 노래를 잘하는 국민도 많지 않다.

d. 국내에서 서울만큼 풍수 길지성을 지닌 곳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e. 소련만큼 예술가의 동상을 많이 세운 나라가 없다.

위 예문에서 ‘~만큼’의 선행 요소인 ‘고향, 우리 나라 사람, 서울, 소련’ 등이 대비 주체이며, 전체 대비 대상 중에서 서술어인 대비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것이다. (23a), (23b), (23c), (23d), (23e) 의 예문은 실은 (24a), (24b), (24c), (24d), (24e) 와 같은 뜻인데, 밑줄 부분이 NP<sub>2</sub>로 의미상의 대비 대상이다. 물론 화자가 대비 대상인 NP<sub>2</sub>의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대비되는 대상과의 견중에서 대비 주체인 ‘~만큼’의 선행 요소가 그 집합 중에서 대비 내용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믿는 경우로, 이러한 믿음은 화자 내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sup>25)</sup>.

- (24) a. 유어를 가진 말 중에서 고향이라는 말이 가장 많을 것이다.  
 b.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실상을 잘 말해 주는 것 중에서 ‘겉치기 출연’ 문제가 이런 실상을 가장 잘 말해 준다.  
 c.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노래를 잘하는 국민들 중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노래를 잘한다.  
 d. 국내에서 풍수 길지성을 지닌 곳 중에서 서울이 제일 풍수 길지성을 지닌 곳이다.  
 e. 예술가의 동상을 많이 세운 나라 중에서 소련이 제일 많이 세웠다.

이희자·이종희(1998)에서는 이 유형에서 ‘~만큼’이 ‘~처럼’과 유의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처럼’으로 대치할 경우 ‘가장 그러함’의

25) 강정희(1992)는 비교의 인식 작용과 관련하여 판단에 대한 기준이 각자 내재하는 주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판단이란 자기 중심적 개념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의미가 약화되고 문장 의미도 중의적으로 변한다.26)

(25) a. 소련처럼 예술가의 동상을 많이 세운 나라가 없다.

a' 소련처럼# 예술가의 동상을 많이 세운 나라가 없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동상을 많이 세운 나라가 없다.)

a~ 소련처럼 예술가의 동상을 많이 세운 나라가# 없다.

(소련이 예술가의 동상을 가장 많이 세운 나라다.)

즉, (25a)는 (25a')와 같이 이해될 수도 있고, (25a'')와 같이 이해될 수도 있다. (25a')는 '소련'과 '동상을 많이 세운 다른 나라' 두 요소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고, (25a'')는 다소 의미가 약하긴 하지만 소련이 제일 많다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만큼'과 '~처럼'이 유의어 관계에 있다면 '~만큼' 구문은 중의적 해석이 불가능하고, '~처럼' 구문은 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처럼'은 대비 내용을 한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며, '~만큼'은 대비 내용을 선행 요소에 한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27) 즉, '~만큼'은 후행 서술어인 대비 내용의 폭을 NP<sub>2</sub>의 선행 요소에 한정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를 '~없다' 표현에 의해 부정하게 되면, 전체를 부정하게 되지만, '~처럼'의 경우 후행하는 서술어를 한정하는 기능이 없어 결합이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중의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다.28)

---

26) 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넣었다.

27) 차광일(1981)과 최윤갑·리세용(1984)에서도 유사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 뜻을 나타낼 경우 비교되는 대상은 때로 같지 않은 두 가지 뜻으로 이해되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1) 이 산은 저 산처럼 높지 않다(이 산과 저 산이 높이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

예2) 이 산은 저 산처럼 높지 않다(이 산이 저 산보다 높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 ; '이산은 저 산처럼은 높지 않다'의 의미)

## <유형 2> : NP<sub>1</sub>이 NP<sub>2</sub>만큼 VP

### ① NP<sub>1</sub>과 NP<sub>2</sub>가 동질 요소인 경우

대비 주체와 대비 대상이 동질 요소로 비교 표현이다. 이 유형은 'NP<sub>1</sub>의 X가 VP의 측면에서 NP<sub>2</sub>의 X와 가장 어떠하다'의 의미를 드러내는 유형으로 'NP<sub>2</sub>와 같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대비 대상인 X는 문장의 표면 구조에 나타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그러나 X의 의미 자질은 대비 내용인 'VP'의 의미 자질과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복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대비 내용의 정도를 'NP<sub>2</sub>만큼'이 한정하고 있다.

(26) a. 이번 여행 내내 나(NP<sub>1</sub>)는 유흥준 교수(NP<sub>2</sub>)만큼 느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X: 느낌).

b. 희천 스님(NP<sub>1</sub>)이 희묵 대사(NP<sub>2</sub>)만큼 힘이 좋아졌습니다(X: 힘).

c. 이 연도(NP<sub>1</sub>)는 중동 고대사에서 알려져 있는 다른 연도(NP<sub>2</sub>)만큼 정확하다(X: 정확성).

d. 영근 알곡(NP<sub>1</sub>)이 섬진강의 흰 모래(NP<sub>2</sub>)만큼 무진하고...(X: 양).

e. 성욱이의 입(NP<sub>1</sub>)이 함박(NP<sub>2</sub>)만큼 벌어졌다(X: 크기).

---

28)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럼' 구문에서 직접적인 '~없다' 표현에 의한 예문은 두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1) 골프처럼 속이기 쉬운 경기도 없지만, 골프처럼 속인 자를 경멸하는 경기도 없다.

예2) 이 세상에서 부영이처럼 억울한 새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위의 두 예문은 '~만큼'에 의해 교체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고, 그나마 예1)은 보조사 '~도'에 의해서, 예2)는 '~는'에 의해서 '~만큼' 구문과 같은 해석이 유도되는 듯하다.

위의 예문들에서 대비 주체의 X(느낌, 힘, 정확성, 양, 크기...)의 정도가 적어도 'NP<sub>2</sub>의 X만하다'는 것으로 대비 주체의 X의 의미 자질과 서술어의 의미 자질이 공유됨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대비 대상 전체 집합 중에서 다른 개개 요소에 대한 측정값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NP<sub>2</sub>의 값은 알고 있는 경우이며, 여기서 대비 내용인 서술어의 정도의 폭을 NP<sub>2</sub>만큼이 한정하고 있다.

② NP<sub>2</sub>의 선행 체언이 '얼마/어느'인 경우

'~만큼'의 선행 체언으로 '얼마/어느'가 결합되는 유형으로 '어느/얼마 정도'로 해석된다. '얼마'는 정해지지 않았거나 아직 모르는 수량이나 값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점을 볼 때, '~만큼'이 측정 가능한 영역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대비 내용의 정도는 NP<sub>2</sub>의 선행 체언인 '얼마만큼/어느만큼'이 한정하고 있다.

- (27) a. 내년 우리 경제 발전의 관건은 수출이 얼마만큼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b. 결국 유권자의 신상 정보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가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c. 하루동안 자동차들이 얼마만큼 지나가는지를 조사해 보는 내용이다.  
 d. 윤봉춘은 그림을 그려 그에게 입은 은혜를 얼마만큼 갚았다.  
 e. 농민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느냐와 상관없이...

이 유형도 전체 집합을 대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7a)는 내년 수출 회복률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7b)는 전체 유권자의 신상 정보 내용을, (27c)는 하루 동안 지나가는 자동차를 전

체 대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7d)의 경우 자신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빛을 전체 대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27)유형에서는 NP<sub>1</sub>과 NP<sub>2</sub>의 관계가 ‘어느/얼마’의 값에 따라 ‘~만큼’의 선행 요소의 크기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이다. 즉, 서술어의 정도의 폭을 ‘~만큼’의 선행 요소인 ‘얼마’가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③ NP<sub>2</sub>의 선행체언이 구체적인 측정 용어인 경우

NP<sub>2</sub>의 요소로 구체적인 측정 용어가 오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NP<sub>1</sub>과 NP<sub>2</sub>가 구체적인 측정 용어이기 때문에 구체적 비교 총위인 ‘길이, 양, 크기’등이 생략기도 하지만, 문맥에서 쉽게 복원이 가능하다.

- (28) a. 장대의 길이(NP<sub>2</sub>)만큼 팔(NP<sub>1</sub>)이 늘어나는 셈이지요.  
 b. 배정된 양(NP<sub>2</sub>)만큼 차질없이 구매(NP<sub>1</sub>)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c. 당신이 저지른 일(NP<sub>2</sub>)만큼 대가(NP<sub>1</sub>)를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d. 희생의 대가(NP<sub>2</sub>)만큼 보상(NP<sub>1</sub>)이 주어질 것입니다.  
 e. 신장의 크기(NP<sub>1</sub>)는 보통 사람의 주먹(NP<sub>2</sub>)만큼 된다.

즉, (28a)는 ‘팔의 길이’를 ‘장대의 길이’에 견주고 있으며, (28b)는 ‘구매의 양’을 ‘배정된 양’에 견주는 것이다. 한편, (28c)와 (28d)에서 ‘일’과 ‘희생’은 물리적 측정 대상일 수는 없지만, 화자는 이 대상을 물리적 측정 대상인 ‘대가’나 ‘보상’과 비교하여 등가를 만들고 있다. 이 유형은 NP<sub>1</sub>과 NP<sub>2</sub> 모두가 구체적 측정 용어로 두 대상이 등가 관계를 이룬다.

김봉모(1990)는 ‘~만큼’ 구문이 대비 대상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견준의 주체가 견준의 대상보다 작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경우

견종의 주체인 NP<sub>1</sub>이 견종의 대상인 NP<sub>2</sub>와 일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만큼’ 구문에서 비교 주체는 비교 대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유형 3> :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

이 유형은 ‘병아리 눈물만큼, 손톱만큼, 쥐꼬리만큼’ 등 아주 적은 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대비 조사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관용적 표현은 아주 적거나, 작은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같이 아주 크거나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대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라고 보여진다. 관용적 표현의 경우에도 NP<sub>2</sub>를 측정 가능한 것으로 환치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서술어의 정도는 NP<sub>2</sub>만큼이 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NP<sub>2</sub>는 정확히 그 양이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체언의 특성에 의해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다.

- (29) a. 원, 비가 저리 병아리 눈물만큼 절끔절끔 와서야 가뭄이 해결 될 턱이 있나.  
 b. 소득세는 왜 손톱만큼 밖에 안 냈고....  
 c. 자기자신에게도 아직 지적 허영이 쥐꼬리만큼 남아 있어서...

위와 같은 유형 분류를 통해, ‘~만큼’은 동질 요소를 견주는 비교 표현에 주로 쓰이는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 표현은 NP<sub>1</sub>과 NP<sub>2</sub>가 동질 요소일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측정 층위인 X가 생략되

기도 하나 서술어의 의미 자질과 동일하여 쉽게 복원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표현은 특별한 체언이나 서술어와만 공기함으로써 관용 표현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은 NP<sub>1</sub>과 NP<sub>2</sub>가 이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볼 때, 처음에 비유적으로 쓰였다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용 표현에서도 NP<sub>1</sub>과 NP<sub>2</sub>가 구체적으로 견주어지는 층위는 ‘양’이나 ‘크기’ 등 측정 가능한 부분이다. 위 유형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만큼’의 유형

표현영역	구체적 유형	결합대상	NP <sub>1</sub> , NP <sub>2</sub>	선행체언제약
비교표현	1. [NP <sub>1</sub> 만큼 VP] NP가 없다 2. NP <sub>1</sub> 이 NP <sub>2</sub> 만큼 VP	NP <sub>1</sub>	동질 요소	제한 없음
	① NP <sub>1</sub> 와 NP <sub>2</sub> 가 동질 요소	NP <sub>2</sub>	동질 요소	제한 없음
	② NP <sub>2</sub> 가 ‘얼마/어느’ 인 경우 ③ NP <sub>2</sub> 가 측정 용어인 경우	NP <sub>2</sub>	미정 동질 요소	얼마/어느 물리적측정성
관용표현	3. NP <sub>1</sub> 이 NP <sub>2</sub> 만큼 VP	NP <sub>2</sub>	이질 요소	병아리눈물 손톱, 쥐꼬리 등

### 3.1.2 ‘만큼’의 의미 특성

3.1.1에서 ‘~만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유형 1>은 부정 표현 ‘~없다’와 공기하여 대비 주체인 NP<sub>1</sub>이 대비 대상인 전체 집합 중에서 ‘대비 내용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으며, <유형 2>는 선행 체언의 조건에 따라 동질 요소의 견준은 ‘NP<sub>2</sub>와 같은 정도로’의 의미를, ‘얼마/어느’와 결합하는 견준은 ‘얼마/어느 정도로’의 의미를, 대비 주체나 대비 대상 중 하나가 구체적인 측정 용어인 경우는

‘NP<sub>2</sub>와 같게’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즉, ‘~만큼’은 ‘~만큼’이 결합하는 체언이 대비 내용인 VP의 정도의 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만큼’의 의미를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도 도출된 것은 ‘~만큼’의 견준이 측정 가능한 것을 견준이기 때문에 도출된 의미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정도] 자질은 ‘~만큼’의 어휘 자체의 의미 특성이 아니라 서술어인 어휘소의 의미에서 유추된 의미이다.

- (30) a. \*영희도 철수만큼 결석했니?  
b. 영희도 철수처럼 결석했니?  
c. 영희도 철수만큼 { 오래, 많이 } 결석했니?

(30a)와 (30b)는 ‘~만큼’과 ‘~처럼’만 다르고 모든 통사적 환경이 동일하다. 그런데 (30a)는 어색하지만 (30b)는 자연스럽다. ‘~만큼’은 ‘결석하다, 살다’ 등의 상보 반의어와 결합이 부자연스럽다. 상보 반의어는 대립 관계에 있는 두 어휘 항목 중에 한쪽의 단언이 다른 한쪽의 부정과 연결되는 상호 함의 관계가 성립하는 어휘 쌍이다. 이러한 상보 반의어는 어휘 자체에 정도의 폭이 없기 때문에 정도어의 수식이 불가능하다. 즉 ‘~만큼’은 후행하는 서술 내용인 대비 내용의 정도의 폭을 한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어휘 자체에 [정도성]을 갖지 못하는 상보 반의어와는 공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럼’은 이러한 한정 기능이 없이 단순히 대비 주체와 비슷한 상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보 반의어와의 공기가 자연스럽다. 한편 ‘오래, 많이’ 등과 같은 상태 부사의 첨가에 의해 2차적으로 서술어가 상태성을 획득하여 대비 내용인 서술어가 [정도성]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비문이 되지 않는다.<sup>29)</sup>

이러한 점을 볼 때 ‘~만큼’의 의미는 [정도]가 아니라 [정도성]을 가진 서술어의 정도의 폭을 NP<sub>2</sub>가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만큼’의 의미는 정도의 [한정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큼’은 동질적인 요소를 직접 견주는 비교 표현에 주로 쓰인다. 비유적 표현도 있으나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둘째, 구체적 대비의 영역은 측정 가능한 영역이다. 이 때, ‘측정성’이란 물리적 측정성 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정성도 포함한다.<sup>30)</sup>

셋째, ‘~만큼’의 의미 특성은 후행하는 서술어의 정도의 폭을 ‘~만큼’의 선행 체언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만큼’의 의미 특성은 [한정성]이다.

---

29) 홍사만(1994)은 동작성 용언은 정도부사와 공기가 자연스럽지 못하는데, 동작성 용언이 상태부사의 수식에 의해 서술부가 상태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즉, 상태성 용언은 어휘 자체에 [정도성] 자질이 있기 때문에 정도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지만, 어휘 내재적으로 [정도성] 자질이 없는 동작성 용언의 경우 2차적으로 상태부사의 수식을 받아 상태성을 획득한 후에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 (\* 정도부사 [+동작성]용언) : \*가장 달리다/ \*매우 보다/ \*꽤 먹다

(정도부사 [+상태성]용언) : 가장 예쁘다/ 매우 좋다/ 꽤 많다/ 몹시 많다

30) 중세 국어에서 동등의 정도를 비교하는 형태로 ‘~마, ~마도, ~맛, ~맛감, ~마끔, ~마치, ~만, ~만도, ~만, ~만만, ~만끔, ~만치, ~터로/쳐로’등이 있었는데 ‘~터로/쳐로(현대 국어의 ‘~처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정한 질량에 관여하는 것들로서 이들이 연결되는 체언들은 모두 단위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홍윤표 1976 : 215)

### 3.2 ‘~대로’의 유형과 의미 특성

‘~대로’의 의미를 최현배(1937)에서는 ‘모양의 같음’이라고 하였으며, 김민수(1971)에서는 ‘본연(本然)’, 김승곤(1989)에서는 ‘~같이, ~따라서, ~꼭 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표 4>의 사전의 뜻풀이만큼이나 모호하다. 그런데 (31)예문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듯이 ‘~대로’의 선행 체언은 ‘~만큼’이나 ‘~처럼’, ‘~같이’와는 달리, 일부 추상 명사만 가능하다.

- (31) a. 규칙대로 처벌하여라.  
b.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c. 알고 있는 사실대로 말하라.  
d.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다.

- (32) a. 규칙이 있다.  
b. 계획을 세웠다.  
c.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d. 명령을 했다.

(31)에서 ‘~대로’의 선행 체언은 각각 (32)같은 내용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도출한다. ‘~대로’ 구문에서는 대비 주체인 NP<sub>1</sub>이 표면에 항상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상의 대비 주체인 발화 시점의 내용이 ‘~대로’의 선행 체언인 전제된 내용을 대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견주는 것이다.

- (33) a. 규격대로 자른 천 위에 판을 대고...
- b.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방식대로 평범하게 장례를 치렀다.
- c. 증거가 다 확보되었으니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 d. 정기 인사는 관계대로 오는 3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 (34) a. 규격이 있다.
- b. 아버지가 살아오신 방식이 있다.
- c. 어떤 사실이 있다.
- d. 정기 인사라는 관계가 있다.
- (35) a. 천 자르는 것을 규격대로 하다.
- b. 장례 절차를 아버지가 살아오신 방식대로 하다.
- c. 어떤 사건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다.
- d. 정기 인사의 실행을 관계대로 3월에 하다.

예문 (33)에 대한 각각의 NP<sub>2</sub>가 (34)이다. 즉 (34)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전제 내용을 대상으로 견주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상의 대비 주체는 (35)의 밑줄 부분으로 표면 구조에서 주어로 실현되기도 하나, 심층에서는 대부분 목적어로 실현된다.

‘~대로’의 선행 체언인 NP<sub>2</sub>는 ‘규격, 방식, 사실, 관계’ 등 지시 대상이 없는 추상 명사이다. 이러한 추상 명사는 외연이 없고 내포 자질만을 가지는 어휘들인데, ‘~대로’는 이러한 어휘들이 가지는 내포 자질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도표 4> ‘~대로’의 사전 뜻풀이

정보	사전	품사	설명내용	예문
국어대사전 (김민수 외, 금성출판사, 1992)		조사	1. 앞에 오는 말에 준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 는 말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 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칙대로 처벌하여라.</li> <li>· 있는 그대로 보여 주자.</li> <li>· 그의 뜻대로 되었다.</li> <li>·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대로 갈라 놓으세요.</li> <li>· 사람들은 각자 자기대로의 생각이 있는 법이다.</li> </ul>
새우리말큰사전 (신용철 외, 삼성출판사, 1992)		조사	1. 일정한 체언이 뜻하는 그 모양과 같이, 그 상태로 2. 구별이 되도록 서로 따로 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대로 두어라.</li> <li>· 명령대로 시행하라.</li> <li>· 서식대로 적어라.</li> <li>·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li> </ul>
국어대사전 (이희승 외, 민중서림, 1994)		조사	1. 그 모양과 같이 2. 서로 따로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대로 되었다.</li> <li>· 그대로 두어라.</li> <li>·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 다.</li> <li>· 나는 나대로 하겠다.</li> </ul>
국어대사전 (남광우 외, 삼성문화사, 1991)		조사	1. 어떤 말 뜻하는 그 모양과 같 이 그 상태로 2. 어떤 뜻에 따라 3. 각각, 따로따로 4. 어떤 동작을 하거나 상태 가 나타나는 그 족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li> <li>· 명령대로 움직이다.</li> <li>·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li> <li>· 쏘는 대로 맞는다.</li> </ul>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조사	1. 그 상태로 2. 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 뜻대로</li> <li>· 너는 너대로</li> </ul>

### 3.2.1 ‘~대로’의 유형

#### <유형 1> : NP<sub>1</sub>이 NP<sub>2</sub>대로 VP

- (36) a. 2백만 호 대역사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b. 일 년을 늦추어 하라는 다른 무당들의 간언이 있었지만 자기 고집대로 서둘러 혼인식을 올렸다.  
c. 요금 인상은 예정대로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d. 한미 정상 회담의 주제는 예상대로 북한 핵 문제였다.
- (37) a. 2백만 호 대역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b. 혼인식을 올리려는 고집이 있었다.  
c. 요금 인상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d. 한미 정상 회담의 주제가 북한의 핵 문제라고 예상을 했었다.

이 유형에서 ‘~대로’는 가르침, 감정, 개성, 결과, 계획, 고집, 약속, 예감, 의지, 유언 등 일부 추상 명사와 공기되어 이러한 체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후행 서술어는 이러한 체언의 구체적 움직임이나 변화 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즉, 대비 내용인 서술어는 [+동작]이나 [+변화]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6d)는 [+동작]이나 [+변화]자질을 갖지 못하는 ‘~이다’ 문장이다.<sup>31)</sup> 이 경우는 대비 주체가 ‘주제’로, 문자로 표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상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1) ‘형용사’와 ‘이다’ 구문은 상태나 성질, 지정 등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동작]자질이 배제된다.(홍종선·최호철·조일영·송향근·고창수 1998)

(37)은 (36)의 NP<sub>2</sub>이다. 즉, 이 유형은 전제된 내용과 현재 발화 상황 내용을 견주는 것으로 동질 요소의 견줄이기 때문에 비교 표현이다.

- (38) a. 그의 말대로 과연 9년 만에 나라 안을 온통 불바다로 몰아넣은 임진왜란이 터졌다.  
b. 과연 스님의 말대로 일본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c. 아이들 말대로 4, 5차시는 내용을 대폭 줄이고 겨울방학 자체 공연에 들어 가기로 했다.  
d. 나도 네 말대로 하고 싶어.

- (39) a. 9년 만에 나라 안을 온통 불바다로 몰아넣은 임진왜란이 터질 거라고 그가 말했다.  
b. 일본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스님이 말했다.  
c. 4, 5차시는 내용을 대폭 줄이고 겨울방학 자체 공연에 들어 가자고 아이들이 말했다.  
d. 네가 어떤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

한편 (38)는 특정의 누군가가 ‘말한 내용 그대로 되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즉 ‘말의 내용’이 NP<sub>2</sub>이며, ‘NP<sub>2</sub>대로’에 의해 대비 주체인 NP<sub>1</sub>이 NP<sub>2</sub>와 일치할 이룬다. 위의 내용은 (39)와 같은 의미가 전제된 것이다.

**<유형 2> : NP<sub>1</sub>은 NP<sub>1</sub>대로, NP<sub>2</sub>는 NP<sub>2</sub>대로**

이 유형은 ‘각자 따로 따로’의 의미를 드러내는 유형으로 복문 구성을 이루며 <유형 1>과 달리 선행 체언에 대한 제약이 없다.

- (40) a. 사건은 사건대로 전개되고, 인물은 인물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b.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  
c.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아라.  
d. 사과는 사과대로 새콤한 맛이 있고, 배는 배대로 시원한 맛이 있다.

**<유형 3> : 관용어 굳어진 유형**

- (41) a. 입주자가 마음대로 아파트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가변형 아파트’가 개발되었다.  
b. 누구 맘대로 내 몸에 갈을 대?  
c. 어디 맘대로 해 보시지.  
d. 얼마든지 맘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해보세요.  
e. 나도 시대의 십자가를 진다고 나름대로 고생을 해 온 편이지만 ..  
f. 시청자들 또한 드라마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정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이 유형은 ‘~대로’와 결합이 매우 긴밀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는 유형으로 ‘선행 체언의 내용 그대로’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맘대로’를 ‘마음대로’의 준말로 보기도 하나, 흥미로운 것은 ‘맘대로’가 선택된 문장

은 그 의미가 부정적 표현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마음대로'가 '맘대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의미 가치의 변동이 생긴 듯하다.<sup>32)</sup>

<도표 5> '~대로'의 유형

표현영역	구체적 유형	결합대상	NP <sub>1</sub> : NP <sub>2</sub>	선행제언계약
비교표현	유형1 : NP <sub>1</sub> 이 NP <sub>2</sub> 대로 VP	NP <sub>2</sub>	이질 요소	제한 있음
기 타	유형2 : NP <sub>1</sub> 은 NP <sub>1</sub> 대로 NP <sub>2</sub> 는NP <sub>2</sub> 대로	NP <sub>1</sub> , NP <sub>2</sub>	이질 요소	제한 없음
관용표현	마음대로, 맘대로, 멋대로, 나름대로, 등			

### 3.2.2 '~대로'의 의미 특성

선행 연구에서 '~대로'의 의미 기능으로 최현배(1937)는 '모양의 같음'을, 김민수(1971)는 '본연(本然)'을, 김승곤(1989)은 '동일'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선행 연구에서는 어떠한 대상을 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장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유형 1>은 전제된 명제 내용을 대비 대상으로 하여 대비 주체가 '전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로'의 구체적 견준의 층위는 내용이다. 그리고 의미 특성은 현재 발화 상황의 내용이 전제된 내용과 일치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용의 [일치성]이다.

32) '마음대로'와 '맘대로'의 관계는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살펴 보기로 한다.

한편 <유형 2>는 <유형 1>과 달리 선행 체언에 제약이 없고 ‘각자 따로 따로’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 유형은 복문 구성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 하나의 단문 내에서는 NP<sub>1</sub>과 NP<sub>2</sub>의 일치성을 찾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로’는 대비 주체의 내용이 대비 대상인 NP<sub>2</sub>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내는데, 견준의 구체적 층위가 두 대상의 내용으로 동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비교 표현이다.

둘째, <유형 1>은 ‘선행 체언 내용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며, 구체적인 지시 대상물이 있는 구상 명사와는 결합하지 못하며, 일부 추상 명사와만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NP<sub>1</sub>이 NP<sub>2</sub>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내용의 [일치성]을 의미 특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일치성 자질로 인해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3.3 ‘~처럼’의 유형과 의미 특성

‘~처럼’의 사전적 의미는 <표 6>와 같다. ‘~만큼’과 마찬가지로 비슷함이나, 같음을 대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설명 외에 아무 것도 주지 못한다. 더구나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과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전은 그 뜻풀이를 ‘...과 같이’ 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어떤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이용한 설명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사전에서 표제어를 논의할 때 특히 동의어가 아닌 유사 유의어나 부분 유의어의 대치에 의한 정의 방식은 사전의 ‘뜻풀이’로서 적합하지 않다(이병근 1992).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유의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뜻풀이에 이용된 그 유의어가 풀이되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어휘·문법적인 차이가 드러나도록 풀이되고 예문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의어들 사이의 의미 차이에 대한 정밀한 의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표 6>의 뜻풀이로는 어떤 것이 비슷하다는 것인지, 또 무엇을 대비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환경을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통해 이들 조사의 추상적 의미는 더욱 알기 어렵다. ‘~처럼’은 이들 대비 조사 중에서 사용 영역이 가장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sup>33)</sup>, 주로 비유적 표현에 쓰인다.

---

33) ‘~처럼’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비교 조사들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장에서 모두 교체가 가능하다.

<표 6> '~처럼'의 사전 뜻풀이

사전	정보	품사	설명내용	예문
국어대사전	(김민수 외, 금성출판사, 1992)	조사	· 체언에 붙어, 견주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소처럼 미련하다. · 아이처럼 순진하다. · 새처럼 날고 싶다.
새우리말큰사전	(신용철 외, 삼성출판사, 1992)	조사	· 체언 다음에 붙어, '...과 같이, ...모양으로' 등의 비슷함을 대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빈 것을 잡되 가득한 것처럼 잡고... · 낮처럼 밝다. · 동태처럼 언 빨래 · 봉선화처럼 빨개지는 얼굴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1992)	조사	· 임자씨나 이름씨 꼴 아래에 쓰이어, 모양이 서로 같거나 비슷함을 나타내는 견중자리토	· 사람이 소처럼 미련하다 ·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 1992)	조사	· 체언이나 용언의 체언형에서 쓰이는 토의 하나. 해당 체언이나 체언형을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시켜 같음을 비기여 쓰인다. · 두 대상의 어떤 표식에서 같거나 비스산 비교 관계를 나타낸다.	· 돌처럼 굳어지다. · 숨은 영웅처럼 임하며 생활하자. · 사과가 호박처럼 크다. · 순이는 나는 새처럼 두팔로 날개를 펼쳤다.
국어대사전	(이회승 외, 민중서림, 1994)	조사	· 체언 아래에 붙어 '...과 같이, ...모양으로' 등의 뜻	· 소처럼 일하다. · 이처럼 만드시오.
국어대사전	(남광우 외, 삼성문화사, 1991)	조사	· 체언 아래에 붙어 '...과 같이, ...모양으로' 등의 비슷함을 대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사과처럼 붉은 불 · 장미처럼 고운 모습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조사	'...같이, ...모양으로'를 뜻하는 비교격조사.	· 아이처럼 좋아하다. · 눈처럼 흰 배꽃

### 3.3.1 ‘~처럼’의 유형

<유형 1> : [NP<sub>1</sub>처럼 VP] NP<sub>2</sub>가 있을까/없을 것이다.

- (42) a. 이 세상에서 부엉이{처럼/만큼} 억울한 새는 없을 것이다.  
b. 세상에 너네 아빠{처럼/만큼} 자기 희생적인 가장이 있을까?
- (43) a. 그렇다고 국문과에 다닌 내가 너{처럼/\*만큼} 고시 준비라도 하  
란 말이냐?  
b. 곤봉이 편리하긴 하지만 각목{처럼/\*만큼} 바람을 쐬는 소리를  
내게 할 수는 없다.

이 유형은 부정 표현이나 부가 의문문 형식과 결합하여 ‘어떤 것에 비해 NP<sub>1</sub>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만큼’의 <유형 1>과 교체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만큼’과 달리 후행하는 서술어를 한정하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NP<sub>1</sub>이 가장 그러하다’는 정도의 극성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42a)와 (42b)는 부정 표현이거나 수사 의문문 형식임에도 ‘~만큼’과 교체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경우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정도성] 자질이 없는 경우로 ‘~처럼’과 ‘~만큼’의 변별력이 드러난다. 즉, (43a)에서 ‘너처럼 하란 말이냐’의 경우는 ‘네가 고시 준비를 하듯 나도 고시 준비를 하란 말이냐’의 의미로 태도의 유사성을 의미하지만, ‘너만큼 하란 말이냐’의 경우는 ‘네가 하는 공부의 양만큼 하란 말이냐’의 의미로 공부의 양을 의미한다.

<유형 2> : NP<sub>1</sub>(X<sub>1</sub>)이 NP<sub>2</sub>(X<sub>2</sub>)처럼 VP

- (44) a. 명주는 무명처럼 질기다.  
b. 모란꽃처럼 진달래꽃도 붉다.  
(45) a.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다.  
b. 모란꽃만큼 진달래꽃도 붉다.

이 유형은 대비 주체와 대비 대상을 직접적으로 견주어, 두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의 비슷함을 나타낸다. 이때 대비 주체인 NP<sub>1</sub>과 대비 대상인 NP<sub>2</sub>는 동질 요소이기 때문에 비교 표현이며, 두 대상의 대비 내용은 서술어의 의미 자질과 동일하다. 즉 (44a)는 명주가 질감이 무명의 질감과 비슷하다는 것이며, (44b)는 모란꽃의 붉기가 진달래꽃의 붉기와 비슷하다는 것으로 단순히 NP<sub>1</sub>과 NP<sub>2</sub>가 유사한 속성을 지녔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45a)는 명주의 '질감의 정도'가 무명에 한정되고 있으며, (45b) 역시 모란꽃의 '붉음의 정도'가 진달래꽃에 한정되고 있다.

이 유형 역시 '~만큼'과의 교체가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정도성]을 갖는 서술어들은 '~처럼'과 '~만큼'의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 의미 차이는 있다. 이들의 의미 차이를 부정문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

- (46) 명주는 무명처럼 질기지 않다.  
⇒명주도 무명도 둘 다 질기지 않음  
⇒무명이 더 질김  
(47)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않다.  
⇒무명이 더 질김

‘~처럼’이 결합된 (46)은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반면, ‘~만큼’이 결합된 (47)은 한가지 해석만 가능하다. 즉 ‘~만큼’은 [한정]자질을 갖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처럼’ 구문은 단순히 두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상태의 비슷함을 나타낸다. 반면 ‘~만큼’은 대비 내용의 정도가 NP<sub>2</sub>만하다는 것으로 정도의 한정을 나타낸다.

### <유형 3> : NP<sub>1</sub>(X)이 NP<sub>2</sub>(Y)처럼 VP

이 유형은 ‘~처럼’의 대표적인 표현 영역인 비유 표현이다. 비유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익히 아는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이나 상태 등을 빌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때 대비되는 내용이 문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비유한다는 점이 은유와 다르다.<sup>34)</sup>

- (48) a. 그녀는 파괴된 가구처럼 엎드려 있었다.  
 b. 그 친구는 폐가 가랑잎처럼, 간이 건포도처럼 메말라 생리적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c. 꼬리를 감고 달아나면서 짓는 개처럼 악을 쓰고 임이네는 방을 나간다.  
 d. 나는 거미줄처럼 짹짹 갈라진 마른 논바닥을 무턱대고 파내려 갔다.  
 e. 마루는 길이 잘 들어 거울처럼 번들댔다  
 f. 인간의 육체는 사육된 가축처럼 비만해지는 반면, 민첩하고도 활

34) 직유와 달리 구체적인 비유 내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유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직유는 화자가 비유 내용을 한정하기 때문에 은유에 비해 의사 소통의 측면에서 보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더 적다

기에 넘치는 본성을 잃어 가고 있다.

g. 그녀는 고양이처럼 요즘 와서 부쩍 투정이 늘었던 말이야.

예문 (48)에서 실제 견주어 지는 층위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처럼’의 대비 주체와 대비 대상의 관계

	NP <sub>1</sub> : X (비교 주체)	비유 내용	NP <sub>2</sub> : Y (비교 대상)	대비 차원
(48) a	그녀	엷드린 모습	파괴된 가구	모양
(48) b	폐, 간	메마른 상태	가랑잎, 건포도	상태
(48) c	입이네	악을 쓰며 방을 나가는 모습	꼬리... 짖는개	모습 · 행동
(48) d	논바닥	쩍쩍 갈라진 모습	거미줄	모양 · 상태
(48) e	마루	반짝거리는 상태	거울	상태
(48) f	인간의 육체	비만해지기 쉬운 속성	사육된 가축	속성
(48) g	그녀	투정부리는 모습	고양이	모습 · 속성

<유형 4> : NP<sub>2</sub>(말, 격언, 가사 등)처럼 VP

(49) a.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는 격언처럼, 놀부야말로 탐욕으로 일어난 자 탐욕으로 망한다는 말에 해당된다 할 만하다.

b. 마르크스의 말처럼 “모든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언제나 지배 계급의 사상”이었던 것이다.

c. 워즈(F.Words)의 말처럼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다울 경우 그 남자는 비난을 받게 된다.

- (50) a. 그러나 16강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b. 그러나 당분간은 회동 자체도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49)의 유형은 'NP<sub>2</sub>의 내용과 비슷하게'로 해석되는 유형이다. 그리고 이때 '~처럼'은 '~대로'와 교체 하여도 직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50a)와 (50b)의 경우는 '말'의 내용이 문장 내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로'와 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경우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회자·이종희(1988)에서는 이 유형에서 '~처럼'과 '~대로'가 유의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로'와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선행 체언의 내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문자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유인되는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로'의 의미와 같이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면 어색해지며, '선행 체언의 내용과 비슷하게'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4.3에서 자세히 논의함)

**<유형 5> :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

- (51) a. 두분께서는 순결한 조선의 딸들이고, 누구누구처럼 남의 덕으로 유학하지 않았으니까!  
 b. 이불을 둘둘 말고 꼬박 하룻밤을 끄끔 앓으니, 다음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나왔다.  
 c. 5층 이상의 건물들은 좁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좁처럼, 누구처럼, (눈에)가시처럼, 거짓말처럼' 등은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로 다른 조사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럼’은 ‘NP<sub>1</sub>과 NP<sub>2</sub>의 대비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위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처럼’의 유형>

표현영역	구체적 유형	결합대상	NP <sub>1</sub> : NP <sub>2</sub>	선행제한사항
비교표현	1. [NP <sub>1</sub> 처럼 VP] NP <sub>2</sub> 가 있을까/없을 것이다	NP <sub>1</sub>	동질 요소	제한 없음
	2. NP <sub>1</sub> (X <sub>1</sub> )이 NP <sub>2</sub> (X <sub>2</sub> )처럼 VP	NP <sub>2</sub>	동질 요소	제한 없음
비유표현	3. NP <sub>1</sub> (X)이 NP <sub>2</sub> (Y)처럼 VP	NP <sub>2</sub>	이질 요소	제한 없음
기 타	4. NP <sub>2</sub> 처럼 VP	NP <sub>2</sub>	이질 요소	말, 격언, 가사 등
	5.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	말처럼, 좀처럼, 가시처럼, 거짓말처럼		

### 3.3.2 ‘~처럼’의 의미 특성

3.3.1에서 ‘~처럼’의 의미 차이를 살피기 위해 문장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유형 1>과 <유형 2>는 동질 요소의 비교 표현이며, <유형 3>은 이질적 요소의 비유 표현이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통해 본 결과, 비교 표현은 그 빈도가 매우 적으며, 비유 표현의 빈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처럼’의 의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장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처럼’은 견주는 두 대상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상태나 속성 등의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처럼’의 의미 특성

으로 [유사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럼’은 이질적인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상태의 유사함을 견주는 비유 표현에 주로 쓰인다. 동질적인 대상을 직접적으로 견주는 비교 표현은 그 빈도가 매우 낮다.

둘째, ‘~처럼’의 구체적인 대비 영역은 사물이나 사건의 특정 속성이나 상태 등을 견주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또한, 사물의 양상이나 속성은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정 용어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셋째, ‘~처럼’의 특성은 대비 주체와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의미 특성은 상태의 [유사성]이다.

### 3.4 ‘~같이’의 유형과 의미 특성

<표 9>는 사전에 등재된 ‘~같이’의 품사와 뜻풀이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말큰사전」과 「조선말사전」을 제외한 다른 사전들은 조사로 인정하여 등재하고 있다. 사전에 등재된 뜻풀이에 ‘~같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등재되어 있다. 첫번째 유형은 ‘~비슷하게, ~처럼’으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선행 체언과 ‘~같이’ 사이에 ‘~와’가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사로 보기보다는 ‘~같다’에 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은 파생 부사로 보기도 한다<sup>35)</sup>. 두번째 유형은 ‘새벽, 매일’ 이라든지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그 때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이 때는 ‘~와’의 복원이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과 비슷하게, ~처럼’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의 두 사전에서는 첫번째 유형은 부사로, 두번째 유형은 관용적인 사용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첫번째 유형이 ‘~와’가 복원 가능하여 ‘~와 같이’ 형태로 쓰일 경우에도 이들 의미가 단순히 ‘~와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과 비슷하게, ~처럼’ 등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또한 ‘~처럼’의 비유 영역에서 쓰임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비교 차원이 아닌 비유적 쓰임이 ‘~같이’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조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2) a. 눈같이 흰 목련화

b.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c. 작부들은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뱀을 본 개구리같이 몸을 피하곤 했다.

---

35)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같이’를 부사로 보고, 이 때 ‘이’는 ‘부사화 접미사’로 보고 있다. 한편, ‘이’를 ‘부사형 어미’로 보아 ‘같이’가 이끄는 절을 부사절로 보는 견해도 있다.

(52a)는 ‘흰 목련이 눈과 동일하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목련꽃의 흰 속성을 눈의 흰 속성에 비유한 것이다. (52b) 역시 ‘아름다운 얼굴’을 ‘꽃’에 비유한 것이고, (52c)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모습이 마치 ‘개구리가 뱀을 보고 달아나는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이지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같이’가 ‘~같다’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중들의 언어 사용은 ‘~와’가 복원되더라도 ‘~와 같다, ~과 동일하다’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즉, 체언에 조사처럼 생산적으로 붙을 뿐만 아니라, 비유적 영역에서 ‘~처럼’과 흡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파생 부사로 보기보다 현대 국어에서 이미 조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36)</sup> 필자는 ‘~같이’가 이미 조사로 굳어진 형태로 보고 논의한다.

36) 홍윤표(1976)는 중세국어의 ‘같다’ 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이중 (1)(3)이譬喩적으로 쓰였으며, 특히 (1) 수사학상에서 소위 직유(simili)처럼 쓰였다고 하였다. (1)유형이 18세기말까지만 쓰이고 그 이후에는 사라져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아울러 언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세국어에서는 ‘같다’ 구문의 비유적 쓰임이 매우 일반적이었다고 하였다.

(1)NP<sub>1</sub>이 NP<sub>2</sub>이 같다.

(2)NP<sub>1</sub>와 NP<sub>2</sub>이 같다.

(3)NP<sub>1</sub>이 NP<sub>2</sub>와 같다.

(4)NP<sub>1</sub>이 NP<sub>2</sub>에 같다.

(5)NP<sub>1</sub>이 NP<sub>2</sub>으로더불어 같다.

(1)의 NP<sub>1</sub>과 NP<sub>2</sub>는 동질 요소(identical quantifier element)가 아니라 이질적 요소로 어느 특정의 관점에 입각하여 비교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로,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상물과 그 이미지(image)간의 유사성이 비교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또한 김정아(1986)에서도 ‘이’형구문이 어떤 대상들이 어떤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같다’ 구문이 서로 전혀 다른 명제 (NP<sub>1</sub>과 NP<sub>2</sub>)가 같다고 말함으로써 역으로 그 두 명제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해 내는 고도의 문체적 기교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 ‘이’형 구문이 ‘A와 B이 같다’구문과 다른 사용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표 9> '~같이'의 사전 뜻풀이

사전	정보	종사	설명	예문
국어대사전 (김민수 외, 금성출판사, 1992)		조사	1. '비슷하게, 처럼'의 뜻을 나타냄. 2.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에 붙어서 그 때를 강조함을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같이 흰 목련화</li> <li>· 얼음같이 차다.</li> <li>· 새벽같이 떠났다.</li> <li>· 매일같이 지각하다.</li> </ul>
새우리말큰사전 (신용철 외, 삼성출판사, 1992)		조사	1. '비슷하게, '처럼'의 뜻을 나타냄 2.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에 붙어서 그 때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같이 희다.</li> <li>· 벼락같이 달려든다.</li> <li>· 새벽같이 도망쳤소.</li> <li>· 매일같이 도서관에 다닌다</li> </ul>
국어대사전 (이회승 외, 민중서림, 1994)		조사	2. 명사나 대명사 밑에 붙어서 그 정도로 어떠한거나 어찌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차같이 빠르다.</li> <li>· 눈같이 희다</li> <li>· 매일같이 간다.</li> </ul>
국어대사전 (남광우 외, 삼성문화사, 1991)		조사	1. 명사나 대명사 아래에 붙어서, 모양이나 동작이 그 정도로 어떠한거나 어찌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2.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에 붙어서, 그 때를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같이 사라지다</li> <li>· 백설같이 희다.</li> <li>· 새벽같이 일어났소.</li> </ul>
새국어사전 (동아 출판사)		조사	1. 체언에 붙어 '그 정도로 의'의 뜻을 나타냄 2. 특히 시간과 관계되는 일부 명사에 붙어 그 시간성을 강조하는 뜻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li> <li>· 성인같이 착한 인품</li> <li>· 새벽같이 떠나다</li> <li>· 기별을 듣고 벼락같이 달려왔다.</li> </ul>

### 3.4.1 ‘-같이’의 유형

#### <유형 1> : NP<sub>1</sub>(X)이 NP<sub>2</sub>(X)같이 VP

- (53) a. (NP<sub>1</sub>)이 밥은 냠같이 하루에 세 그릇이나 먹는다.  
b. 나도 틈소여같이 여러 가지 모험을 할 것이다.  
c. (NP<sub>1</sub>)이 저번 장날같이 쇠통이 걸려 있었다.

이 유형은 동질 요소의 직접 견증인 비교 표현으로 ‘~와 마찬가지로’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 유형은 ‘~처럼’과 교체해도 직관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처럼’과 달리 주로 행위(움직임)에 초점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칙화를 하기가 어렵다. 아마 처음에는 두 조사가 변별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심리적 강도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된다. 즉, 그 형태에서 그 어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같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자의 심리가 이러한 혼용의 이유인 듯하다.

#### <유형 2> : NP<sub>1</sub>(X)이 NP<sub>2</sub>(Y)같이 VP

- (54) a.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면 문방구안은 개미집같이 복잡하여 무엇이든 잃어버리는 날이 많다.  
b. 대학 다닐 때, 내 앞에 올 것 같지 않던 중년의 세월이 도둑같이 스며들었듯이 노경의 시간도 이미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 c. 짜리를 튼 독사같이 도사리고서 상현은 싸늘하게 말했다.
- d. 여교사들이 그 맹꽁이같이 툭 튀어 나온 교장 선생님의 배를 일제히 문제 삼고 나섰다.
- e. 소녀같이 흰 살결, 건달처럼 길게 기른 구레나룻, 그리고 까맣게 빛나는 머리를...

이 유형은 이질적 요소의 견줄인 비유 표현이다. 특히 이 유형은 ‘~처럼’의 비유 표현과 유의 관계를 이룬다고 보여진다. (54)의 예문은 ‘~처럼’과 상호 교체하여도 심리적인 강도의 차이 이외에는 의미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도표 10> ‘~같이’의 대비 주체와 대비 대상의 관계

	NP <sub>1</sub> : X (비교 주체)	비유 내용	NP <sub>2</sub> : Y (비교 대상)	비교 차원
(54) a	문방구 안	복잡한 상황	개미집	상황
(54) b	중년의 세월	(빠르게)스며드는 양상	도둑	양상(의인화)
(54) c	상현	앉아 있는 모습과 싸늘하게 말하는 행위	짜리를 튼 독사	모습 · 행위
(54) d	교장선생님	툭 튀어 나온 배	맹꽁이	모양
(54) e	살결	흰 피부 상태	소녀	상태

<유형 3> : 관용어로 굳어진 유형

- (55) a. 무슨 일로 이렇게 새벽같이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 b. 그는 이병각이 홀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같이

문병을 다녔다.

- c.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매일을 하루같이, 지금부터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이 반지로 서약합니다.

‘새벽같이, 매일같이, (10년을)하루같이’ 등 관용적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실제 자료에서는 ‘~같이’보다 결합 빈도가 적지만, ‘~처럼’에 의해 교체되어도 직관에 기대어 볼 때 별로 어색하지는 않다.

<도표 11> ‘~같이’의 유형

표현영역	구체적 유형	결합대상	NP1 : NP2	선행제언계약
비교표현	1.<NP <sub>1</sub> (X <sub>1</sub> )이 NP <sub>2</sub> (X <sub>2</sub> )같이 VP>	NP <sub>2</sub>	동질 요소	제한 없음
비유표현	1.<NP <sub>1</sub> (X)이 NP <sub>2</sub> (Y)같이 VP>	NP <sub>2</sub>	이질 요소	제한 없음
관용표현	매일같이, 새벽같이, 하루같이 등			

### 3.4.2 ‘~같이’의 의미 특성

‘~같이’는 3.4.1에서 문장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비 층위의 초점이 두 대상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듯하나, ‘~처럼’과 상호 교체하여도 우리의 직관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기능과 분포가 동일한 두 어휘가 의미의 변별성이 없이 사용된다는 것은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다. 이렇듯 뚜렷한 의미 차이가 없이 두 형태가 사용되는 이유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이’는 형태면에서 ‘같다’라는 어원을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중들이

두 대상의 비슷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처럼’보다 ‘~같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sup>37)</sup>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이’는 이질적인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상태를 간접적으로 견주는 비유 표현에 주로 쓰인다. 비교 표현도 있으나 그 빈도가 적다.

둘째, 구체적인 대비의 영역은 ‘~처럼’과 마찬가지로 사물이나 사건의 속과 상태를 견주는 것으로, 그 표현의 강도만 다른 뿐 ‘~처럼’과 유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같이’의 의미 기능은 ‘~처럼’과 마찬가지로 대비 내용 측면에서 대비 주체와 대비 대상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태의 [유사성]을 의미 특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

37) 요즈음 10대 청소년들의 구어에서는 ‘~처럼’보다 ‘~같이’의 출현 빈도가 더 높은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두 어휘가 점점 동의어화 되어 가는 과도기라는 생각된다.

## 제 4장 대등적 대비 조사의 의미 관계

제3장에서 우리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조사의 용법을 유형화하고 이들 조사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았다. 즉 ‘~만큼’은 정도의 [한정성]을 의미 특성으로 가지며, ‘~대로’는 전제된 명제 내용 그대로의 의미를 드러내므로, 내용의 [일치성]을 의미 특성으로 가지며, ‘~처럼’과 ‘~같이’는 속성이나 상태의 [유사성]을 의미 특성으로 갖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각주 1)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조사들이 특정 문맥 유형에서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의미 상관 관계를 살펴 보겠다.

<표 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처럼’은 관용적인 표현만 제외하고 특정 유형에서 다른 대비 조사와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즉, ‘~처럼’의 비교 표현 영역은 ‘~만큼’의 <유형 1>과 <유형 2> 중에서 동질 요소의 비교 표현인 ① 유형과 상호 교체가 가능하며, 비교 표현과 비유 표현은 ‘~같이’와 그리고 <유형 4>는 ‘~대로’와 교체가 가능하다.

- (56) a. 이 세상에서 부영이{처럼/같이/만큼} 억울한 새는 없을 것이다.  
b. 명주는 무명{처럼/같이/대로} 질기다.  
c. 그녀는 파괴된 가구{처럼/같이} 옆드려 있었다.  
d. 마르크스의 말{처럼/같이/대로} “모든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언제나 지배 계급의 사상”이었던 것이다.

<표 12> ‘~처럼’과 다른 조사와의 교체 가능 유형>

표현영역	구체적 유형	교체 가능 영역	
비교표현	1. [NP <sub>1</sub> 처럼 VP] NP가 있을까/없을 것이다 2. NP <sub>1</sub> (X <sub>1</sub> )이 NP <sub>2</sub> (X <sub>2</sub> )처럼 VP	‘~만큼’과 교체 가능	‘~같이’와 교체 가능
비유표현	3. NP <sub>1</sub> (X)이 NP <sub>2</sub> (Y)처럼 VP		
기 타	4. NP <sub>2</sub> 처럼 VP	‘~대로’와 교체 가능	
	5.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	말처럼, 좀처럼, 가시처럼, 거짓말처럼	

이희자·이종희(1998)에서는 이러한 교체 가능성을 근거로, ‘~처럼’의 비교 표현이 ‘~만큼’과 유의어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비유 표현에서 ‘~처럼’은 ‘~같이’를 관련어로 설정하고 있다.<sup>38)</sup> 그러나 이러한 교체 검증법에 의한 검증만으로 이들이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점이 있다. 만약 이들 비교 조사들이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면, 동일한 의미 영역 내에서 특정한 의미 자질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문맥 유형에서 교체되는 조사들이 실제로 특정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지 그 의미 관계 양상을 자세히 살펴 보겠다.

#### 4.1 ‘~처럼’과 ‘~만큼’의 의미 관계

제2장에서 필자는 ‘~만큼’은 측정 가능한 총위를 건주는 것으로 그 의미 특성으로 정도의 [한정성] 자질을 설정하였고, ‘~처럼’은 상태나 속성

38) 이희자·이종희(1998)에서 관련어란 ‘의미가 비슷한 단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유의어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 [유사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자질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진단 틀을 이용해 보자.

#### 4.1.1 측정성과 상대성

‘~만큼’은 대비되는 두 대상의 측정이 가능한 영역을 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처럼’은 측정 불가능한 영역을 견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이 조사가 결합하는 선행 체언과 공기하는 서술어를 이용해 검증할 수 있다.

##### 【선행 체언 제약 조건을 이용한 진단 틀】

- (57) a. 내가 가지고 싶은 개수{만큼/\*처럼/\*같이} 가져라.  
b. 발을 어깨 넓이{만큼/\*처럼/\*같이} 벌려라.  
c. 의자 높이{만큼/\*처럼/\*같이} 발을 올려라.  
d.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무게{만큼/\*처럼/\*같이} 담아 가져라.

먼저, ‘~만큼’은 (57)과 같이 구체적으로 측정 용어(measuring word)인 ‘넓이, 길이, 무게’ 등이나, 구체적 수치 명사 등과 결합이 가능하지만, ‘~처럼’은 이들 체언과 결합되지 못한다.<sup>39)</sup> 즉 사물의 상태나 속성 등은 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즉 ‘~처럼’은 질적인 층위를 견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정 용어와는 결합이 불가능한 것이다.

---

39) 김정대(1993; 29)에서 ‘~처럼’이 수치 명사 구문에서 비교 구문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처럼’은 선행 체언의 ‘상태·속성’등 측정 불가능 영역을 비교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 체언이 수치 명사인 경우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 (58) a. 그 친구는 폐가 가랑잎{처럼/\*만큼}, 간이 건포도{처럼/\*만큼} 메말라 생리적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 b. 꼬리를 감고 달아나면서 짖는 개{처럼/\*만큼} 악을 쓰고 임이네는 방을 나간다.
- c. 나는 거미줄{처럼/\*만큼} 짹짹 갈라진 마른 논바닥을 무턱대고 파내려 갔다.
- d. 그녀는 파괴된 가구{처럼/\*만큼} 옆드려 있었다.

한편, ‘~만큼’은 ‘~처럼’의 비유 표현과 교체가 불가능하다. 비유 표현은 구체적인 비유 내용인 속성이나 상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준의 대상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환치시키는 ‘~만큼’과는 공기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58)의 예문은 ‘~처럼’ 비유 표현으로 쓰인 것으로 구체적인 비유 내용은 특정한 속성이나 상태인데, ‘~만큼’과 교체하면 그러한 상태나 속성이 전주어지지 않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환치되어 그 의미가 달라진다.

다음, ‘~만큼’은 ‘값이나 무게 따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다’의 의미인 서술어 ‘나가다’와 공기가 가능하나, ‘~처럼’은 공기되지 못한다.

- (59) a. 영희의 몸무게가 철수만큼 나간다.
- b. \* 영희의 몸무게가 철수처럼 나간다.
- (60) a. 영희가 철수만큼 나간다.
- b. \* 영희가 철수처럼 나간다.

(59a)의 ‘나간다’는 여전히 ‘값이나 몸무게가 어느 정도에 이르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59b)는 문장에서는 ‘어느 정도에 이르다’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이유가 선행 체언이 측정 용어이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몸무게’를 생략한 (60a)와 (60b)는 서술어의 의미가 명백하게 달라져 있다. (60a)는 여전히 ‘어느 정도에 이르다’의 의미이지만, (60b)에서는 그런 의미는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만큼’이 측정하여 단위화된 총위를 견주는 것과 달리, ‘~처럼’은 상태나 속성 등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을 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큼’이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도 ‘측정성’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4.1.2 한정성과 유사성

‘~처럼’의 비교 표현은 ‘~만큼’과 교체가 가능하다. 어떤 어휘소들이 특정한 문맥에서 상호 유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에서 의미의 공통 성분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특정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공유 의미 자질을 추출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제3장에서 필자는 ‘~만큼’은 대비 내용을 ‘~만큼’의 선행 체언에 한정하는 기능을 갖지만 ‘~처럼’은 단순히 두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의 유사함을 대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61) a. 명주가 무명만큼 질기다.

b. 명주가 무명처럼 질기다.

(61a)와 (61b) 두 문장은 ‘~만큼’과 ‘~처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만약 이 두 문장에서 의미 차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조사가 완전히 다른 어휘소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며 두 어휘소는 유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문장은 직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61a)는 ‘명주의 질김의 정도가 바로 무명만 하다’는 것이지만, (61b)는 단순히 두 대상이 ‘그 속성(질기다)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관에 의한 느낌만으로 의미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부정문을 이용하여 두 조사의 의미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61a)와 (61b)는 부정문으로 만들었을 경우, ‘~만큼’ 구문은 한가지 해석만 되는데 이와 달리 ‘~처럼’ 구문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sup>40)</sup>

(62) a. 명주가 무명만큼 질기지 않다.

해석1: 명주 < 무명 (무명이 더 질김)

b. 명주가 무명처럼 질기지 않다.

해석1: 명주 < 무명 (무명이 더 질김)

해석2: 명주도 무명도 질기지 않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만큼’은 후행 서술어의 정

40) 중의성은 하나의 형식이나 언어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시하는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중의성은 동음 이의어에 의한 어휘적 중의성(lexical ambiguity), 문장의 통사 구조에 의한 구조적 중의성(structural ambiguity), 특정 단어가 의미 해석에 미치는 범위(scope)에 따라 나타나는 작용역 중의성(scope ambiguity) 등이 있다. 작용역 중의성은 어떤 언어 형식이 영향을 미치는 작용역이 발화 전체인지 부분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양화사(quantifier)나 부정 표현(negative expression)에서 많이 나타난다.

‘~만큼’과 ‘~처럼’의 경우에는, ‘~만큼’은 대비 내용이 되는 서술어의 등급의 폭을 한정하는 기능이 있어, 대비 주체와 결합보다 서술어와 더 긴밀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지만, ‘~처럼’은 대비 내용을 한정하는 기능이 없어 대비 주체나 대비 내용과의 결합도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의 폭을 한정하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한정된 후 부정되어 해석이 하나로 제안되지만, ‘~처럼’의 경우 ‘무명처럼’이 ‘질기다’를 한정하지 못하며, 단지 명주와 마찬가지로 ‘질김’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만 드러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의적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만큼’은 [한정성]을 시차 특성으로 ‘~처럼’은 [유사성]을 시차 특성으로 인하여 분명한 의미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두 조사가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이 [대비]와 [대등]의 의미 영역에 함께 분포함으로써 의미적으로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 4.2 ‘~처럼’과 ‘~같이’의 의미 관계

‘~처럼’과 ‘~같이’의 경우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감정적인 표현 강도 이외에는 서로 다른 자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다만, 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럼’은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의 견zum에 초점이 있으며, ‘~같이’는 비교 내용이 움직임의 견zum에 초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규칙화 할 수 없고, 상호 교체하여도 우리의 직관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때, 의미적으로 중첩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1) 원래 ‘~같이’가 조사로 굳어지면서 ‘~처럼’의 영역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좀 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슷하다’라는 조사보다 ‘같다’가 어원인 ‘~같이’를 대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어휘도 완전한 동의어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두 조사의 차별성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것은 과도기로 보인다. 한편 구어와 문어차이의 개연성도 있을 것이다.

- (63) a. 그녀는 파괴된 가구{처럼/같이} 옆드려 있었다.  
 b. 나는 거미줄{처럼/같이} 째째 갈라진 마른 논바닥을 무턱대고 파 내려 갔다.
- (64) a.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면 문방구 안은 개미집{처럼/같이} 복잡하여 무엇이든 잃어버리는 날이 많다.  
 b. 짜리를 튼 독사{처럼/같이} 도사리고서 상현은 싸늘하게 말했다.

(63a)와 (63b)는 언중들이 사용한 ‘~처럼’의 자료이며, (64a)와 (64b)는 ‘~같이’의 자료이다. 두 조사가 쓰인 환경의 차이를 규칙화하기 쉽지 않다. 다만, ‘~같이’가 ‘같다’에서 온 것을 고려할 때, 화자는 ‘~처럼’을 사용하는 것보다 ‘NP<sub>1</sub>’과 ‘NP<sub>2</sub>’를 더 동일하다고 인지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두 조사는 심리적인 표현의 강도만 다르기 때문에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 4.3 ‘~처럼’과 ‘~대로’의 의미 관계

‘~처럼’ 구문이 ‘~대로’와 교체 가능한 유형은 이들 체언이 구어이든 문어이든 언어로 표현 가능한 경우이다. 하지만 선행 체언이 ‘말’인 경우에 모두 교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문장에 ‘말, 가사, 보도’ 등 그 내용이 나타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체언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 경우도 ‘그대로’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처럼’ 구문은 ‘~이다’와 공기가 자연스러운 반면, ‘~대로’ 구문은 부자연스럽다. ‘~대로’가 선행 체언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나

타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진술문을 만드는 ‘~이다’와 공기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대로’는 선행 체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일치성] 자질을 갖는다.

(65) a. 당신 말대로 당신 희생당하고 있어.

b. 그의 말대로 과연 9년 후에 나라 안을 온통 불바다로 몰아넣은 임진왜란이 터졌다.

c. 과연 스님의 말대로 일본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d. 2백만 호 대역사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 ...예정대로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66) a.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는 격언처럼, 놀부야말로 탐욕으로 일어난 자 탐으로 망한다는 말에 해당된다 할 만하다.

b. 마르크스의 말처럼 “모든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언제나 지배 계급의 사상”이었던 것이다.

c. 워즈(F.Words)의 말처럼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같은 경우 그남자는 비난을 받게 된다.

(65)의 경우는 ‘~대로’의 선행 체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로 ‘~처럼’과 교체하면 부자연스럽다. (66a)는 ‘격언 내용’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고, (66b)는 ‘마르크스가 말한 내용’과 ‘워즈워드가 말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즉 ‘~처럼’ 구문의 경우는 서술어 내용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반면, ‘~대로’의 경우는 ‘그대로 이루어지다’로 해

석된다.

‘~대로’는 ‘NP<sub>1</sub>이 NP<sub>2</sub>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일치성]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67)과 같이 대비 주체와 대비 대상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처럼’ 구문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 (67) a. 당신이 희생당한것은 당신 말대로 된 것이다.  
b. 과연 일본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의 심판을 받은 것  
은 스님의 말대로 된 것이다.  
c. 계획대로 2백만 호 대역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대로’와 ‘~처럼’ 역시 이들이 [대비]와 [대등]의 공통 자질에 의해 동일한 의미 영역에 분포함으로써 의미적으로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조사가 명백한 시차 특성을 가지며 어휘 자체의 공통 자질이 없으므로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 제 5장 결론

지금까지 주로 ‘동등’ 내지 ‘대등’의 비교 조사로 한 부류를 이루어 연구되어 온 일군의 조사 형태의 의미 특성과 이들 형태 사이의 의미 관계를 살펴 보았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실제 언중들이 사용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의미를 추출하였으며, 개별 조사의 쓰임을 유형화하여 환경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장의 유형화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기계 번역과 관련하여 자료 처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란 두 개 이상의 사물이나 사건을 견주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견주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인지 활동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작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저에 견준의 인식 작용을 있는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등의 표현 유형을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 보았다. 표면적인 표현은 동질적인 요소의 직접 견준인 비교 표현과 이질적인 요소의 간접 견준인 비유 표현으로 구분이 된다.

‘~만큼’은 측정 가능한 영역에서 동질적인 요소를 직접 견주는 표현에 주로 쓰이는 조사이며, 대비 내용인 서술어의 정도의 폭을 ‘~만큼’의 선행 체언에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한정성]을 의미 특성으로 갖는다.

‘~대로’의 <유형 1>은 구상 명사와 결합하지 못하며 일부 추상 명사와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대비 주체의 실행이 ‘대비 대상인 NP<sub>2</sub>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므로 [일치성]을 의미 특성으로 갖는다. <유형 2>는 선행 체언에 제약이 없으며, 복문 구성으로 나타나는데 단문 내에서 [일치성]을 찾을 수 있다.

‘~처럼’은 대비 주체의 상태나 속성을 대비되는 대상의 상태나 속성의 유사함과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사성]을 의미 특성으로 갖는다.

특히 ‘~같이’와 함께 이질적인 대상의 선택된 속성이나 상태를 간접적으로 견주는 비유 표현에 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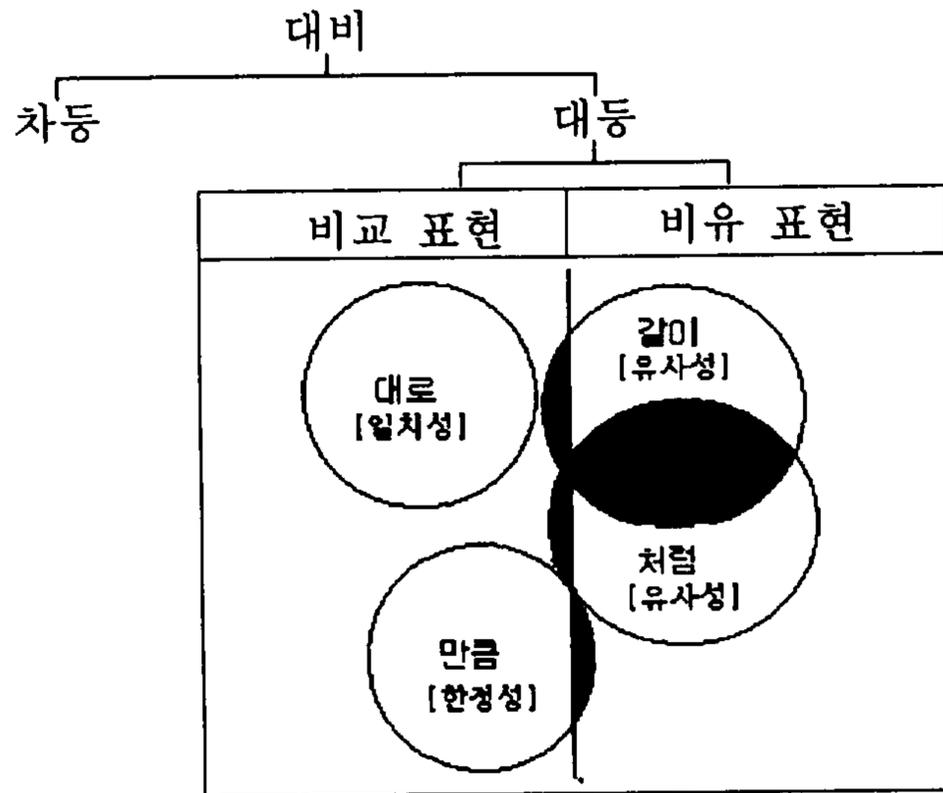
‘~같이’ 역시 ‘~처럼’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질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견주기 때문에 [유사성]을 의미 특성으로 갖는다. 다만 ‘~처럼’이 상태나 속성, 즉 정적인 층위를 견주는 반면, ‘~같이’는 비교 주체나 대상의 움직임에 초점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자료를 통해 규칙화하기 어렵고 또한 상호 교체하여 사용하여도 의미 차이를 느낄 수 없이 우리의 직관에 받아들여지는 볼 때, ‘~같이’와 ‘~처럼’은 서로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된다.

이들 조사는 [대비]의 영역에서 [대등]의 공통자질에 의해 [차등]과 경계지어진 하나의 의미 영역을 형성하는데, ‘~만큼’과 ‘~대로’는 [비교]의 자질에 의해 하위 영역을 형성하며, ‘~처럼’과 ‘~같이’는 [비교]와 [비유]가 모두 나타나므로 비교 영역과 비유 영역에 걸쳐 분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은 의미 영역을 경계 짓는 자질로, 어휘 자체의 의미 자질이 아니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질의 모유 여부가 유의 관계의 성립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만큼’과 ‘~대로’는 [대비] [대등] [비교]를 공통자질로 하여 ‘~만큼’은 [한정성]을 시차 자질로, ‘~대로’는 [일치성]을 시차 자질로 갖는다. 그리고 ‘~처럼’과 ‘~같이’는 [대비] [대등] [비유·비교]를 공통 자질로, [유사성]을 시차 자질로 갖는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만큼, ~처럼, ~같이, ~대로’는 대등한 것들을 견주는 형태로 하나의 의미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영역 내에서 ‘~처럼’과 ‘~같이’는 중첩 관계를 이루지만, ‘~만큼’과 ‘~대로’는 각각 차별적인 의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동일 영역 내에서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관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sup>42)</sup>



<그림 13> 대등적 대비 조사의 영역

문법 형태의 의미는 의미 기술의 어려움 때문에 통사론적 연구에 비해 의미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 언중들의 자료인 대단위 코퍼스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특정한 문법 형태의 용례를 이용하여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의미를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도 자료를 유형함으로써 대비 조사 중에서 대등한 대상을 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대비 조사의 의미 체계와 개별 조사의 의미 특성이 체계적으로 기술되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연구가 병행될 때, 좀 더 정확한 의미 특성과 변화 추이 등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등 대비 조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차등 대비 조사의 의미 체계가 밝혀짐으로써 대비 조사의 의미 체계가 공고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42) 개별 조사의 비교 표현과 비유 표현의 비율은 각주 10)을 참조하기 바람.

## 참 고 문 헌

- 강기진(1987). “국어 어휘론의 한 방법-동의어를 중심으로”, 「서강 이정탁 교수 화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 강정희(1992). “비교와 가정, 추측, 비유의 인식론적 상관성에 대하여: ‘같다’구문을 중심으로”, 「한남대 논집」(인문과학) 22, 한남대학교.
- 김광해(1987). 「유의어·반의어 사전」, 도서출판 한샘.
- 김광해(1989). “유의 관계의 성립 조건”, 「강윤호교수화갑기념논총」.
- 김광해(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20, 국어학회.
- 김광해(1989). 「현대국어의 유의현상에 대한 연구-固有語 對 漢子語의 一對多對應現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민수(1990). 「국어의미론」, 일조각.
- 김민수(1998). “의미의식에 관한 동서양의 연대적 순환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 한국어 의미학회.
- 김봉모(1990). “국어 견뚱말 연구”, 「한글」 209, 한글학회.
- 김봉주(1986). 「의미의 의미」, 한신문화사.
- 김봉주(1996). 「개념학」, 한신문화사.
- 김석득(1982). 「주시경 문법론」, 형설출판사.
- 김승곤(1987). “견뚱월 연구”, 「한글」 196, 한글학회.
-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승곤(1996). 「우리말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박이정.
- 김승곤(1996). “한국어 조사의 어원 연구”, 「우리말 역사 연구」, 한말연구회.

-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분포와 기능을 중심으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김용석(1981). “유의어 연구-그 개념규정과 원형분류”, 「배달말」 5, 배달말학회.
- 김정대(1990). “비교구문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경남어문논집」 2, 경남대학교.
- 김정대(1994).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아(1986). “‘갈하다’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 「진단학보」 62, 진단학회.
- 김종택(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 김진식(1991). 「국어 유의어의 생성 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규·강범모(1996).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I (KOREA-1 CORPUS) : 설계 및 구성”, 「한국어학」 3, 한국어학회.
- 고경태(1999). 「국어 조사 ‘에’와 ‘로’의 의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1976). “특수 조사의 의미 분석- ‘까지, 조차, 마저’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 고창수(1994). “시제 처리의 자질 통사론”, 「어문논집」 33,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 고창수(1995ㄱ). “비선형적 문법 모형에 대하여”, 「한성어문학」, 20, 한성대 국문과.
- 고창수(1995ㄴ). “자질통사론의 품사 분류”, 「한남어문학」 20, 한남대 국어국문학연구회.
- 고창수(1997). “한국어 조사 결합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5, 한국어학회.
- 고창수·김원경(1998). “한국어 선어말어미의 정보처리”, 「한국어학」 8, 한국어학회.
- 고창수 편저(1999). 「한국어와 인공지능」, 태학사.

- 국립국어연구원(1994).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나은영(1997). “까지, 조차, 마저의 의미 구조 분석”, 「한국어학」6, 한국어학회.
- 남성우(1972). “국어 유의어고”, 「단국대 논문집」5·6집.
- 남성우(1990). “어휘”,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국어연구회.
- 남윤진(1996). “현대국어 조사 기술의 몇 문제 : 자연언어처리의 관점에서”,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 노양진·나익주 율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류구상(1976). “동의, 중첩어의 구조», 「어문논집」17, 고려대 국문과.
- 류구상(1983). “국어 후치사에 대한 재론”, 「경희어문학」6, 경희대학교.
- 문금현(1989). 「현대국어 유의어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1988). “국어 동의문 연구”, 「선칭어문」16-17, 서울대학교 사범대.
- 박영순(199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 출판부.
- 서정수(1969). “국어 의존 명사의 변성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 42·43합병호
- 서정수(1996). 「국어 문법」(수정 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1990).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성광수(1978). 「국어 조사에 대한 연구」, 형설출판사.
- 성광수(1992). “문법 형태소의 뜻풀이”, 「새국어생활」2-1, 국립국어연구원.
- 성광수(1998). “의미해석과 의미기술의 한계 -동의성과 반의성을 중심으로-”, 「추상과 의미의 실제」, 박이정.
- 손남익(1993). “어휘의미론 연구사(I)”, 「현대의 국어 연구사(김민수 편)」, 서광학술자료사.
-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남익(1996). “국어 부사와 수식 대상”, 「한국어학」4, 한국어학회.
- 송석중(1973). “동의성-언어학자의 Frankenstein”, [국어학]2. 한국어학회.
- 신현숙(1984). 「동사{받다/얻다/버리다/잃다}의 의미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현숙(1986).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신현숙(1991). 「한국어 현상-의미분석」, 상명여자대학교출판부.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 양상”, 「국어학」 3, 국어학회.

양인석(1994). “어휘의미론”,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장석진 엮음,  
한신문화사.

양태식(1992). 「국어 구조 의미론」, 서광학술자료사.

이광호(1993). 「국어 유의어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동(1984). “다의어와 의미의 일관성”, 「인문과학」52, 연세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이기우 율김(1994).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이동혁(1998). 「국어의 연어적 의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병근(1992). “사전 정의의 유형과 원칙”, 「새국어생활」2-1, 국립국어연구원.

이상태(1994). “만큼 구문의 통사론적 연구”, 「부산한글」13.

이석주(1981). “동의어고: 정의, 양상과 의미영역”, 「한성대 논문집」5.

이석주(1989). “반의어에 대한 고찰”, 「이용주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대제각.

이석주(1996). 「국어 형태론」, 한샘.

이승명(1971). “국어 유의고(其二)”, 「어문논총」7, 경북대 인문과학.

이익환(1995). 「의미론 개론」, 수정증보판, 한신문화사.

이원근(1996). 「우리말 도움토씨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이용주(1969). “한국어 어휘체계의 특징”, 「국어교육」15,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 I-기본적인 관점-」, 삼지원.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을환 · 이용주(1964). 「국어의미론」, 수도출판사.

- 이익환(1985). 「현대의미론」, 민음사.
- 이익환(1998). 「의미론 개론」(수정·증보판), 한신문화사.
- 이종열(1997). 「현대국어 동의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행(1996). 「한국어의 문법 연구」, 중앙대 출판부.
- 이희자·이종희(1998). 「텍스트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 임지룡(1983). “의미중복에 대하여”, 「배달말」8, 배달말학회.
- 임지룡·윤희수·옴김(1989). 「어휘 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연구사”,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 집문당.
- 임지룡(1998). 「국어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전수태(1996). “반의 병렬 구조의 의미 배열”, 「한국어학」3, 한국어학회.
- 조명원·나익주·옴김(1997).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언어학과 원형이론」, 한국문화사.
- 주시경(1910). 「국어 문법」, 박문서관.
- 차광일(1981). 「조선어 토대비문법」, 료녕인문문화사.
- 최윤갑·리세용(1984). 「조선어학사전」, 연변인문출판사.
- 채 완(199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호, 국어연구회.
- 채 완(1990). “특수조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편.
- 채 완(1993). “특수조사 목록의 재검토”, 「국어학」23, 국어학회.
- 최경봉(1996). “명사의 의미 분류에 대하여”, 「한국어학」4, 한국어학회.
- 최은규(1985). 「현대국어 유의어의 의미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렬(1981). “동의성과 다의성의 한계”, 「교육논총」1, 전북대학교.

- 최창렬(1992). 「한국어의 의미구조」, 한신문화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호철(1993). 「현대 국어 서술어의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호철·홍종선·조일영·송향근·고창수(1998). “기계번역을 위한 한국어  
논항 체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3, 한국어 의미학회.
- 최호철(1998). “구조 의미론의 수용 양상과 어휘 의미론의 과제”, 「한국어  
의미학」 2, 한국어의미학회.
- 최재웅(1998). “한국어 특수조사 ‘-만’ : 형식의미론적 분석”, 「한국어 의미  
학」 3, 한국어 의미학회.
- 허발 위음(1992). 「구조적 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하길종(1997ㄱ). “현대 한국어 동등 비교구문의 의미연구”, 「한국어학」 5,  
한국어학회.
- 하길종(1997ㄴ). 「현대 한국어 비교구문의 의미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한광익(1998). 「{-와/-과}로 구성된 명사구의 의미 연구」, 고려대 석사학  
위논문.
- 한정한(1990). 「국어 비유어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사만(1983). 「국어 특수조사론」, 학문사.
- 홍사만(1994). 「국어 의미론 연구」, 형설출판사.
- 홍윤표(1976). “비교구문에서의 격어미와 후치사”, 「학술원 논문집」 15.

<원서 · 번역서>

가와가미 세이사꾸 편저(이기우 · 이정애 · 박미엽 옮김(1997), 「인지언어학의 기초」, 한국문화사)

Beaugrande, R.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Longman.

(김태옥 · 이현호 공역(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Coseriu, E.(1973). (허발 역(1997). 「현대 의미론의 이해」, 국학자료원)

Cruse, D.A.(1986). *Lexical Semant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임지룡 · 윤희수 옮김 (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Hilliday &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 Longman.

Hayakawa, S. I.(1967). (김영준 역(1994), 「의미론」, 현음사)

Horst Geckeler. (장영천 역(1987), 「구조 의미론과 낱말발 이론」, 집현사)

Lakoff, G.(1987a).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기우 역(1995), 「인지 의미론」, 한국문화사.)

Nida, E.(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조항범 역(1994). 「의미분석론」, 탑출판사.)

Kempson, R. M.(1977). *Semantic Theory*, London: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허광일 · 이석주 · 박양구 공역(1980). 「의미론」, 한신문화사.)

Lakoff & Johnson.(1980). *Metaphor We Live b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 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Lyons, J.(1977). *Semantics Vol 1&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gden, G. K. & I. A.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 (김봉주 역(1986), 「의미의 의미」, 한신문화사.)
- Palmer, F. R.(1981). *Semantics(2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현대 언어학 연구회 옮김(1984). 「의미론」. 한신문화사.)
- Rudi Keller(1990). *Sprachwandel*. Dusseldorf.  
 (이기숙 역(1994), 「언어 변화」, 서광학술자료사)
- Ullmann, S.(1962). *Semantics :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 Basil Blackwell.  
 (남성우 역(1987), 「의미론: 의미과학입문」, 탑출판사)
- van Dijk, T. A.(1980). *Textwissenschaft Eine inter disziplinare Einführung*. (정시호 옮김(1995), 「텍스트학」, 민음사)
- Wheelwright, P. E.(1962). *Metaphor and Reality*.  
 (김태옥 역(1982), 은유와 실재, 문학과 지성사)

#### <사전류>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김민수 외(1992).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남광우 외(1991). 「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 동아출판사 편(199 )
-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 신용철 외(1992).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 이회승 외(199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 ABSTRACT

### Study on Compared marker in Current Korean language

Na Eun Mi

Major in Korean linguistics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In this thesis, equivalent markers among comparative markers were studied in microscopic detail. Researched markers belong to the same grammatical class of word and have similar functions. Therefore, the thesis was pursu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quivalent-comparative markers were the same domain of meaning.

In order to avoid illogical reasoning, illustrative sentences were written based on practical sentences spoken by general Korean speakers instead of being artificially made up.

This thesis includes following contents.

In Chapter 2, th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following discussion are stated.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a comparative and metaphorical expression is stated. 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s of lexemes, synonym relationship, the semantic domain, the conditions of synonyms, and the method to test synonym relationship are also

stated.

In Chapter 3, the feature of each marker are classified. 'Mankum' and 'Daero' are markers that are usually used to compare two things. In the thesis, 'Mankum' was characterized by the meaning of 'limitation' and 'Daero' by the meaning of 'identity'. Meanwhile, 'Cheorum' and 'Gachi' are markers to compare situations, behaviors,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factors; they typify 'similarity'.

'Cheorum'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other markers in sentences. In Chapter 4, such characteristic of 'Cheorum'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markers are explained. The substitution test in a certain context has been done to illuminate the synonym relationship of words. However, the substitution could not discover whether words themselves have the same meaning originally. It should be proved that the word has diverse meanings in itself.

'Mankum', 'Cheorum', 'Gachi', and 'Daero' are classified into a certain type of meaning; they have similar functions to compare and equivalent. Then, they are categorized into a 'comparison' and 'metaphor' mark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objects compare: objects have common or different features. However, such function is based not on a marker itself but the meaning of it in sentences. Therefore, it could not be declared whether or not they have the same meaning only based on the fact that they have same characteristics. 'Mankum' has the meaning of comparison except when it is used idiomatically. 'Daero' is located in the field of comparative meaning. 'Cheorum' and 'Gachi' usually belong to the field of metaphorical

meaning and are sometimes used to compare objects in sentences.

In Chapter 5, discussions in advanced chapters are summarized and proposals for following studies are suggested.

**Key words:** comparative marker,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s of lexemes, the synonym relationship, comparative expression, and metaphorical expression.